



사랑하는 _____ 님께 드립니다

The excellence of the Church
does not consist in multitude but in purity.
- John Calvin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순결함에 있습니다.

- 존 칼빈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USPTO Reg. No. 3026768
USPTO Reg. No. 3746835
USPTO Reg. No. 3008631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Dear Lord 주님,

From August 2023, 8월에는

Time 시간

Place 장소

에서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Name 이름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0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3 통독본문
3년 1독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06

2023 JAN
금요일 · Fri

빛의 자녀의 삶

Life as children
of light

4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었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4

5

맥집기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빛의 자녀로 살라고 권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와 같이 교회도 성결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1

새 284장(통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묵상본문

2 에베소서 5:3-14

3 에베소서 5장

6

3음행과 온갖 더러운 짓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
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
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
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라

7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
망하라

12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
이라

13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
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
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어시리라 하였
느니라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Reading Insight

Paul urged people to be imitators of God. As Paul was talking about the holy life of believers, he urged peopl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husband and wife, he urged the church to be holy and blameless.

🎵 The Abundant Love of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Ephesians 5:3-14	Ephesians 5

³ But sexual immorality and all impurity or covetousness must not even be named among you, as is proper among saints.

⁴ Let there be no filthiness nor foolish talk nor crude joking, which are out of place, but instead let there be thanksgiving.

⁵ For you may be sure of this, that everyone who is sexually immoral or impure, or who is covetous (that is, an idolater), has no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God.

⁶ Let no one deceive you with empty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the wrath of God comes upon the sons of disobedience.

⁷ Therefore do not become partners with them;

⁸ for at one time you were darkness, but now you are light in the Lord. Walk as children of light

⁹ (for the fruit of light is found in all that is good and right and true),

¹⁰ and try to discern what is pleasing to the Lord.

¹¹ Take no part in the unfruitful works of darkness, but instead expose them.

¹² For it is shameful even to speak of the things that they do in secret.

¹³ But when anything is exposed by the light, it becomes visible,

¹⁴ for anything that becomes visible is light. Therefore it says, “Awake, O sleeper, and a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은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이 무엇과 같다고 말했습니까? (5절)
What did Paul call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v. 5)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9절)
What is the fruit of the light?
(v. 9)

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LS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CA)
가나안한민연합감리교회, 이상현(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Do Not even Mention the Name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기 전, 손을 닦고 오라고 이야기 하며,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돌아오는 길에 벽이나 바닥 등을 만지지 말고 곧바로 자기 자리로 돌아오라"고 당부합니다. 손 닦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벽을 쓸거나 바닥에 넘어져 손을 더럽힌 채로 돌아옵니다. 그 아이들은 간식을 먹을 수 없고, 다시 손을 닦고 와야 합니다.

바울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5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마 5:28)라고 하였고, 바울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3절)고 말합니다. 생각도 하지 말고 입에 담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기 때문입니다(12절).

반면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할 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과 함께 하며 다시 우상숭배하고, 외인이나 나그네로 돌아가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빛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Before giving snacks to children, we usually ask them to wash their hands and urge them, "On your way back from the restroom, come straight back here without touching the wall or the floor." We know clean hands will get dirty again and washing them would be an exercise in futility. Nonetheless some kids wipe the wall with their hands or fall on the floor and get their hands dirty again on their way back. Those children cannot be given the snacks and must wash their hands again.

Paul called the immoral, impure, or greedy person an idolater (v. 5). Jesus said that anyone who looked at a woman lustfully had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Matt 5:28). Paul said,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v. 3). Don't even think about them or speak about them because it is shameful even to mention them (v. 12).

On the other hand, we must get out of darkness and walk in the middle of light. As we decide to live as children of light, we will experience the fruit of goodness, righteousness and truthfulness and become imitators of God. As we are called to be the holy people of God, we must live life quite different from our old life. Will you go back to the life of an alien or wayfarer, living with the unbelievers and idolaters? Or do you want to walk in the middle of light with thanksgiving and as heirs to the kingdom of God?

‘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친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4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

첫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5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7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자녀들의 매일 말씀묵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스티커를 활용해보세요

7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 Youtube 바로가기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 Youtube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일독/말씀묵상

혼자서도 문제없다

1 시간을 정해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Family Pleasant Hill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서를 정합니다. 아빠>엄마>첫째>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목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08

[illegible]10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2 사도행전 Acts 2장 □	3 사도행전 Acts 3장 □	4 사도행전 Acts 4장 □	5 사도행전 Acts 5장 □
9 사도행전 Acts 8장 □	10 사도행전 Acts 9장 □	11 사도행전 Acts 10장 □	12 사도행전 Acts 11장 □
16 사도행전 Acts 25장 □	17 사도행전 Acts 15장 □	18 사도행전 Acts 16장 □	19 사도행전 Acts 17장 □
23 사도행전 Acts 20장 □	24 사도행전 Acts 21장 □	25 사도행전 Acts 22장 □	26 사도행전 Acts 23장 □
30 사도행전 Acts 27장 □	31 사도행전 Acts 28장 □		
		07 Jul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9 September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Why _왜 읽어야 할까

주님과 의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의 겸손을 구하라. 그분 안에 있는 깊은 겸손의 회복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What _어떤 보배인가



책 소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랜 고민과 묵상이 만들어낸 고전으로 겸손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겸손을 배우도록 한다. 아울러 겸손이 우리 삶과 신앙의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앤드류 머레이(Andrew Murray)

평생을 남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스코틀랜드의 선교사 앤드류 머레이. 그는 240여 편의 주옥같은 글들을 남겼는데,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의 경건생활과 기도 에 관한 것이다. 그가 쓴 저서의 특징은 신앙의 핵심을 찾아서 일목요연하게 해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모든 저서는 머레이 자신의 경건과 기도 생활 가운데에 직접 깨닫고 체험한 것을 담고 있기에 더욱 놀라운 깊이가 있으며, 동시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CHAPTER 6 일상 생활에서의 겸손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경에서 묘사한 겸손을 더욱더 알기 힘씁시다. 그리고 세상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안에 그러한 겸손을 발견할 수 있는지 물어봅시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약속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는 성경 구절을 마음속 깊이 새깁시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 우리는 겸손한 하나님 어린 양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와 같이 우리 마음속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이 우리를 통해 생명수같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비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써의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사회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선교단체에게서 사랑과 인내의 정신이 많이 부족한 우리의 슬픈 현실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만 형제자매를 서로서로 섬기며 인내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마땅히 기쁨이 되어야 함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방해자 그리고 부담감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겸손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낮은 자로 기꺼이 되려고 하고 가장 낮은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가장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들의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진정한 겸손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는 반면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것은 왜 힘들어할까요? 아마도 겸손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목표이며 제일 으뜸가는 덕목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교회가 소홀히 해서가 아닐까요?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겸손의 본보기가 되지 못했고 겸손이야말로 우리 삶에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지만 이로 인해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부족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겸손을 달라고 간구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시험의 순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수단(means of grace)과 정화의 도구(instrument for our purification)로 바라봅시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깨끗한 몸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이시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읍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사 오로지 겸손, 즉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여 구하게 될 것입니다.

(*)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내 영혼의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따뜻하지 못하고 참을성이 없으며 친절하지 못함을 발견하였습니다. 나는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의 뜻을 말길 때 그는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따뜻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조지 폭스, George Foxe) 

사도행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행 1:8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1장 8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가슴이 뻗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집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불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들이 성취됩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성취를 목격하는 증인이 됩니다.

1. 책이름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은 책의 내용이 사도들이 한 일을 체계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의 첫 부분은 사도들이 한 일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서들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계속하셨다고 사도행전 자체가 소개합니다. 둘째, 사도행전은 열둘 혹은 열네 명의 사도들 중 그 활동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거나 이름이 거명되는 사람은 베드로, 요한, 바나바, 사울(바울) 정도입니다. 더 크게 보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의 활동이 주가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 혹은 ‘예수님의 사역’ 등으로 바꿔 부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도행전’으로 책의 이름이 명명된 되에는 헬라어 표제, “사도들의 행적(Πράξεις των Αποστόλων)”을 따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 저자와 기록 목적

모든 신학자들이 인정하듯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에 의해 쓰여졌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연결된 책입니다. 고대 저술 환경의 한계로 인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어려웠으므로 누가복음의 끝에 이 책이 사도행전에 연결된다는 것, 사도행전의 시작에 이 책이 누가복음에 이어지는 것임을 독특한 문학 기법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즉, 누가복음의 끝에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관한 기사를 간략하게 요약해 소개했고, 사도행전의 처음에는 이 사건을 확대하여 자세히 소개한 것이 그러한 기법에 속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는 사도행전 서론에 누가복음과 같은 수신자 “데오빌로 각하”를 언급함으로써 이를 분명히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을 “예수님이 활동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행 1:1)로 요약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기록해야만 했습니다. 곧 그것이 사도행전이며 이것이 복음(사건)의 결과요 계속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토대로 하여 그 위에 세워진 교회의 역사를 알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인류를 위한 것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케 하신 분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마지막 절에 “바울이 …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행 28:31)고 기록함으로써 그 기록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3. 복음의 전파: 말씀의 성취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는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무엇이 사도행전에서 좋은 소식인가요? 사도행전 1장 1절을 참고한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며 가르치신 것”, 즉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포함되어 있는 많은 설교나 변증도 예수님의 생애, 하신 일들, 그 교훈을 요약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때로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행 5:42),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행 10:36)라고 요약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전파가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과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두 사도가 복음을 전한 결과 예루살렘 교회는 숫자가 언급되지 않은 목격자들(사도들과 제자들)을 포함하여 3,000명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교회에 대한 박해로 사도 이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행 8:1) 됩니다. 이 흩어진 교인들을 통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파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행 9:20)을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행 9:31). 이방인(행 10장) 뿐만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이 사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11장).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증거가 이제 예루살렘이 속한 더 넓은 바깥 지역, 즉 팔레스틴 전역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13장부터 누가는 시야를 팔레스틴의 북부 지역으로 옮겨줍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여행을 통해 바보,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버가에 복음이 전파되고 믿는 자들이 생겼으며 점차 교회가 세워지고 조직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바울의 두 번째 전도여행과 세 번째 전도여행에 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새로운 지역 유럽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지시를 따라 드로아까지 갔고 그곳에서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갔으며 드디어 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이 바울에 의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뢰아, 아테, 고린도, 에베소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다시 복음이 들어갈 새로운 지역인 로마로 누가의 시선은 이동합니다. 복음이 바울에게 실려 로마로 가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는 사도행전 2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성전에서 체포된 사건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바울이 죄수로 잡혀 재판판을 받고 로마로 호송되는 전 과정을 통해 전파됩니다. 유대인 지도부, 로마 총독을 위시한 고관들, 헤롯 왕과 그의 부인 등에게 강하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28장 17절에 의하면 바울과 함께 복음이 로마에 도착했고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복음은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팔레스타인,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 지역을 거쳐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지적하는 대로 당시 사람들이 땅 끝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로마는 우리 관점에서 보면 복음 전파의 끝이 아니라 역사가 흘러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연장선 위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4. 특징


첫째, 사도행전의 중요 주제인 복음의 증거가 성령의 오심과 연결됩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것이며 이는 오순절에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의 증거 활동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지시와 인도로 진행되었음을 누가는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을 향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는 증인들의 지역적 안배도 결국은 성령님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에 도달하여 교회의 새 구성원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와 충만으로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는 과정에도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사람의 마음을 열어 주심도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음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둘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시 제자들로 불리고 후에 사도들, 신자들, 교회로 불린 사람들은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주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성령이 임하여 성령이 함께 한 자들을 예수님은 사용하시고 그들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 즉 교회는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선택된 그릇임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셋째,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하며 무엇보다도 복음사건과 복음사역을 정확한 역사적 안목으로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누가는 현대적 의미의 역사가(자신의

역사관을 따라 중요한 사건들을 빠짐없이 모두가, 즉 불신자라도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기술한 그런 사람)는 아닐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그 지역의 그 출발점에 맞추어 하나하나 추려서 자세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는 세계사의 흐름을 주시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의 발생 과정과 그 진행과정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복음사건과 복음사역이 허구가 아닌 실제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오늘날에도 일어날 사건이며, 일어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5. 개요(사도행전 1:8에 입각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복음전파의 성취를 따른 개요)

- I. 초대 기독교 공동체 1:1-26
- II. 증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함 2:1-8:4
- III. 증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전도함 8:5-40
- IV. 말씀이 더 퍼져나감: 증인들이 이방에서 전도함 9:1-14:28
- V. 이방 기독교인들에 대한 예루살렘 회의 결정 15:1-35
- VI. 바울의 세계선교와 증인 15:36-22:21
- VII. 말씀을 증언하기 위한 바울의 감금 22:22-28:31 

01

2023 AUGUST
화요일 • Tue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Wait for
the Promised
Holy Spiri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으며 복음전파의 지상명령을 통해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해주셨습니다.

🎵 새190장(통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1:1-11

사도행전 1장

- 1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 2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 3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 4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 5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 6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 7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9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 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Reading Insight

Jesus instructed his disciples to wait for the Holy Spirit promised by the Father. He delegated ministry for them to preach the Gospel through the Great Commission.

Wait for the Promised Holy Spirit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1:1-11	Acts 1

1 In the first book, O Theophilus, I have dealt with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each,

2 until the day when he was taken up, after he had given commands through the Holy Spirit 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

3 He presented himself alive to them after his suffering by many proofs, appearing to them during forty days and speaking about the kingdom of God.

4 And while staying with them he ordered them not to depart from Jerusalem, but to wait for the promise of the Father, which, he said, “you heard from me;

5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6 So when they had come together, they asked him, “Lord, will you at this time restore the kingdom to Israel?”

7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seasons that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8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 of the earth.”

9 And when he had said these things, as they were looking on, he was lifted up, and a cloud took him out of their sight.

10 And while they were gazing into heaven as he went, behold, two men stood by them in white robes,

11 and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heaven? This Jesus, who was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the same way as you saw him go into heave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사도행전의 수신자를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1절)

Who is listed as the author of the Book of Acts? (v. 1)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5절)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John's baptism and Jesus' baptism? (v. 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성령 공동체

Community of the Holy Spirit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에 충분히 뜨거웠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하지 마. 아직 아니야. 지금의 뜨거움만으로는 안 돼. 오직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회사나 기업들이 직원을 채용할 때 많은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증인,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령충만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친히 주인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섬김의 공동체를 세우며, 선교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것은 성령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 성령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시작했다가 중단된 상태라면 다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치 이리 가 운데로 들어가는 양과 같을지라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순결함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말하지 않고 우리 입술에 할 말을 부어주시길 것입니다.

Jesus urged his disciples not to leave Jerusalem, but to wait for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had promised. Having encountered the risen Jesus, the disciples may have felt confident to go out into the world with the gospel. But Jesus says, “Don’t do anything else. Not yet, even with the passion you have now. Just pray, wait, and expect. Wait for the Holy Spirit the Father has promised.”

Companies and businesses look for many qualifications when hiring employees. But there is only one thing required of every believer who is called to be a witness of the resurrection or an evangelist. It is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must come and indwell them. That’s why the book of Acts is the book of the Holy Spirit – the story of people who received the Holy Spirit. After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they built communities of worship, communities of service, and communities of mission.

One thing that every single person who comes into the church, which is the Lord’s body, should experience is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Jesus tells us to be people of the Spirit before we go out into the world. So now, I want all of us to start praying. If you are currently taking a break from praying, I want you to start praying again. If you’ve been praying, I want you to never stop praying. Even though we are like sheep walking into a pack of wolves, the Holy Spirit will give us wisdom and keep us pure. The Holy Spirit of truth will guide us into all truth and teach us what we should say, instead of us speaking for oursel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02

2023 AUGUST
수요일 • Wed

오순절 성령강림

The Coming of
the Spirit
at Pentecos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을 통해 보혜사에 대한 예언이 성취되었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본격적으로 복음 증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 새197장(통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2:1-13

사도행전 2장

-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 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밋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 11 그레게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Reading Insight

At Pentecost, the prophecy of the Comforter was fulfilled.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give witness of the gospel in earnest.

🎵 God Whose Grace Overflows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2:1-13	Acts 2

- 1** When the day of Pentecost arrived,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 2** And suddenly there came from heaven a sound like a mighty rushing wind, and it filled the entir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 3** And divided tongues as of fire appeared to them and rested on each one of them.
- 4**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 5** Now there were dwelling in Jerusalem Jews, devout men from every nation under heaven.
- 6** And at this sound the multitude came together, and they were bewildered, because each one was hearing them speak in his own language.
- 7** And they were amazed and astonished, saying, “Are not all these who are speaking Galileans?”
- 8** And how is it that we hear, each of us in his own native language?
- 9** Parthians and Medes and Elamites and residents of Mesopotamia, Judea and Cappadocia, Pontus and Asia,
- 10** Phrygia and Pamphylia, Egypt and the parts of Libya belonging to Cyrene, and visitors from Rome,
- 11** both Jews and proselytes, Cretans and Arabians—we hear them telling in our own tongues the mighty works of God.”
- 12** And all were amazed and perplexed, saying to one another, “What does this mean?”
- 13** But others mocking said, “They are filled with new win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2-3절)
How is the coming of the Holy Spirit at Pentecost described? (vv. 2-3)

제자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2-13절)
How did people who saw the disciples speaking in tongues respond? (vv. 12-1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목회자를 위한 기도

성령충만을 위한 기도

Prayers for the Filling of the Spirit

제자들은 한곳에 모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될는지 아무도 모르나, 그저 주님의 분부대로 힘써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복음전파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로서 벅찬 감동과 기대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벅찬 기대와 설렘의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아와 온갖 탐욕으로 꽉 찬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비로소 내 모든 더러움이 씻겨졌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가 되는 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지 열흘째가 되었을 때, 모인 모두가 성령세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심령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할 때 새 술에 취했다는 조롱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 안에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죽었던 영적 감각이 되살아났음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오직 기쁨과 감격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이 전부 되었습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찬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찬만하네.” 바로 이때가 제자들이 세상 앞에 설 준비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The disciples were gathered together in one place to pray and wait for the Holy Spirit that the Father had promised. No one knew how long that wait would be, but they prayed with all their might at the Lord's command. The disciples must have prayed with great excitement and anticipation as they were commissioned by the Lord to spread the gospel. But the more they prayed, the more their prayers of anticipation and excitement became prayers of confession and repentance. The more we long for the Holy Spirit, the more we find ourselves drawing closer to the cross of Jesus. There, at the foot of the cross, we find ourselves full of selfishness and greed and experience our filth being washed away and cleansed by the grace of His cross.

On the fiftieth day after Jesus' resurrection, when they had been praying together for ten days, all who were present wer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ir repentant hearts, confessing all their sins. When they spoke in tongues, they were even mocked for being drunk. But it showed that the Holy Spirit had begun to work in them, and that the spirit of the believers had been revived. For them, joy, excitement, and the name of Jesus became everything: "I am filled with Jesus. I'm full of Jesus." This was the moment when the disciples were ready to go into the world. Now the Holy Spirit is ready to preach, heal the sick and work through them. This is the Book of Act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03

2023 AUGUST
목요일 • Thu

기도시간에 일어난 일

What Happened
When People Pray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표적이 일어나며, 베드로는 십자가의 신비와 회개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 새263장(통197장) 이 세상 험하고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3:1-11

사도행전 3장

- 1 제 구 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 2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 3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 4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 5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 8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 9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 10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 11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Reading Insight

Where the name of Jesus is proclaimed, signs happen. Peter accurately proclaims the mystery of the cross and the message of salvation through repentance.

🎵 I Hear the Saviour Say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3:1-11	Acts 3

1 Now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t the hour of prayer, the ninth hour.

2 And a man lame from birth was being carried, whom they laid daily at the gate of the temple that is called the Beautiful Gate to ask alms of those entering the temple.

3 Seeing Peter and John about to go into the temple, he asked to receive alms.

4 And Peter directed his gaze at him, as did John, and said, “Look at us.”

5 And he fixed his attention on them, expecting to receive something from them.

6 But Peter said, “I have no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7 And he took him by the right hand and raised him up, and immediately his feet and ankles were made strong.

8 And leaping up, he stood and began to walk, and entered the temple with them, walking and leaping and praising God.

9 And all the people saw him walking and praising God,

10 and recognized him as the one who sat at the Beautiful Gate of the temple, asking for alms. And they were filled with wonder and amazement at what had happened to him.

11 While he clung to Peter and John, all the people, utterly astounded, ran together to them in the portico called Solomon’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초대 교회 교인들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1절)

How did believers in the early church pray? (v. 1)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를 경험하고 한 일은 무엇인가요? (6절)

What did the lame man do first after being healed? (v. 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계속되는 기도의 삶

A Life of Unceasing Prayer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계속되는 기도 중심의 삶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한 번의 강력한 영적 체험만으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우리 일상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에 턱없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기도의 삶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드리는 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 드리는 기도, 식사 기도 모두 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제 구시, 즉 오후 3시는 일상의 분주함, 그 한복판을 의미합니다.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즐겨야 할 것도 많은 그 시간에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에서 우선순위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병자에게 구원과 능력의 이름, 곧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라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눠 줄 수 있습니까? 수도관이 수원에 연결되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쏟아내듯이, 기도 중심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그분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널리 전하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Peter and John were going up to the temple around the ninth hour to pray. This shows that they lived a prayer-centered life even after they experienced the filling of the Spirit at Pentecost. May our prayers continue unceasingly as well because we are far too fragile to rely on one powerful spiritual experience to live as the fragrance of Christ in our daily lives and in the world full of spiritual warfare.

Miracles happen in a life of unceasing prayer because, in a prayer-driven life, priorities are set in ways that are pleasing to God. Prayers in the morning after we wake up, prayers before we go to bed, and prayers at meals are all precious. But the time of 3 p.m. in today's text represents a time of the day when we are busy. It signifies praying by stopping what you're doing and praying even when there's a lot to get done and a lot to enjoy. Similarly, we should look at the priorities in our lives.

Also, the reason miracles happen in a life of unceasing prayer is because it is a life connected to Jesus, who is the source of living water. Peter boldly proclaims. “I have no silver or gold, but what I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of Nazareth, get up and walk.” Peter and John gave the man the name of salvation and power, which is the name of Jesus. We can share with others only what we have in us. How can we share what we don't have? Just as a water pipe that is connected to a water source pours out water when we turn on the faucet, a prayer-driven life connects us to Jesus and enables us to share his power and salva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04

2023 AUGUST
금요일 • Fri

위기 속에서 강력해지는 기도

Prayer Becomes
Powerful in the Midst
of Crisi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복음전파에 핍박이 뒤따르게 되지만, 성도들은 더욱 소리높여 기도 함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사도들은 더욱 담대히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 새325장(통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4:1-12

사도행전 4장

- 1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 2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 함을 싫어하여
- 3 그들을 잡으매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 었으나
- 4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오천이나 되었더라
- 5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 는데
- 6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 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 7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 8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 9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 10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 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 느니라
- 11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 릿돌이 되었느니라
- 12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 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Reading Insight

Persecution follows the preaching of the gospel, but the saints experience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by praying more loudly, and the apostles more boldly testify of Jesus' resurrection.

🎵 Living for Jesus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4:1-12	Acts 4

- 1 And as they were speaking to the people, the priests and the captain of the temple and the Sadducees came upon them,
- 2 greatly annoyed because they were teaching the people and proclaiming in Jesus the resurrection from the dead.
- 3 And they arrested them and put them in custody until the next day, for it was already evening.
- 4 But many of those who had heard the word believed, and the number of the men came to about five thousand.
- 5 On the next day their rulers and elders and scribes gathered together in Jerusalem,
- 6 with Annas the high priest and Caiaphas and John and Alexander, and all who were of the high-priestly family.
- 7 And when they had set them in the midst, they inquired, "By what power or by what name did you do this?"
- 8 Then Peter, filled with the Holy Spirit, said to them, "Rulers of the people and elders,
- 9 if we are being examined today concerning a good deed done to a crippled man, by what means this man has been healed,
- 10 let it be known to all of you and to all the people of Israel that by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whom you crucified, whom God raised from the dead—by him this man is standing before you well.
- 11 This Jesus is the stone that was rejected by you, the builders, which has become the cornerstone.
- 12 And there is salvation in no one else, for there is no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by which we must be sav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관원들과 장로들이 사도들을 놓아주며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18절)
What actions did the rulers and elders take in releasing the apostles? (v. 18)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나요? (11절)
What does Peter compare Jesus' life to? (v. 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접합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역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er Over Adversity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방해와 시련도 함께 따라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감금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외치는 자를 감옥에 가둔다 해도,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땅의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베드로를 세워놓고 위협할 때에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외칩니다. “예수 밖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어떤 트집도 잡지 못하고 처벌할 어떤 구실도 찾지 못한 나머지, 그저 예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겁박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오히려 사정하고 애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나 스스로 판단해 보아라.” 반대와 위협이 그 강도를 더하면 더할수록, 사도들과 성도들의 기도 또한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 위해 모인 곳이 진동하고 제자들은 더욱 성령충만해졌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s present, there are always obstacles and trials. Satan does not allow the gospel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o be proclaimed in any way.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even arrested the apostles and imprisoned them. But even if those who proclaim the gospel are put in jail, the gospel of God is not bound. No one can confin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the prisons of the earth. Even when the high priest Annas and others in his family stand up and threaten him, Peter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cries out. “There is no other name of salvation but Jesus.” The Jewish leaders did not investigate or find any excuse to punish, but simply threatened them not to preach or teach in Jesus’ name. Instead, it seems as if they are asking and begging for a favor of the apostles.

Peter and John speak fearlessly. “Judge for yourselves whether it is right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or to listen to men.” The more opposition and threats intensified, the more powerful the prayers of the apostles and believers. The place where they gathered to pray shook, and the disciples became mo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s the situation gets tougher, don’t forget that God has given us a powerful weapon: prayer.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혁으로



05

2023 AUGUST
토요일 • Sat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The Church
Where the Holy Spirit
Work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을 속으려다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은 핍박과 투옥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는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 새208장(통246장) 내 주의 나라와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5:7-16

사도행전 5장

7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8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10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12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Reading Insight

Ananias and Sapphira die for trying to deceive God. The disciples are persecuted and imprisoned, but their work of preaching the gospel is not hindered.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5:7-16	Acts 5

7 After an interval of about three hours his wife came in, not knowing what had happened.

8 And Peter said to her, “Tell me whether you sold the land for so much.” And she said, “Yes, for so much.”

9 But Peter said to her, “How is it that you have agreed together to test the Spirit of the Lord? Behold, the feet of those who have buried your husband are at the door, and they will carry you out.”

10 Immediately she fell down at his feet and breathed her last. When the young men came in they found her dead, and they carried her out and buried her beside her husband.

11 And great fear came upon the whole church and upon all who heard of these things.

12 Now many signs and wonders were regularly done among the people by the hands of the apostles. And they were all together in Solomon’s Portico.

13 None of the rest dared join them, but the people held them in high esteem.

14 And more than ever believers were added to the Lord, multitudes of both men and women,

15 so that they even carried out the sick into the streets and laid them on cots and mats, that as Peter came by at least his shadow might fall on some of them.

16 The people also gathered from the towns around Jerusalem, bringing the sick and those afflicted with unclean spirits, and they were all heal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온 교회는 어떻게 되었나요? (11절)

What happened to the whole church because of Ananias and Sapphira? (v. 11)

베드로가 길을 지나갈 때 어떤 일까지 일어났나요? (15절)

What happened when Peter passed by on the road? (v. 1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송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The Church Where the Holy Spirit Works

본문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특징들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고 정직한 영만이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외식하는 즉시 복음의 능력은 상실됩니다. 껍데기가 아닌 진리로 설 때에만 능력이 나옵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교회는 삶의 방식, 출신 배경, 경제적 수준 등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됨을 경험하며 힘써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일원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며,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하는 곳입니다. 넷째로, 믿는 자들이 날로 늘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십자가 은혜로 진정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교회 밖으로 흘러나가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섯째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성도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꿈꾸고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경험하는 곳에는 질병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며, 절망은 소망으로 변하고, 고통의 신음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The text shows the nature of the church where the Holy Spirit works. First, as the events of Ananias and Sapphira show, the Church is a community filled with the Most Holy and upright Spirit. The moment we lose our sincerity and hypocrisy arises, we lose the power of the gospel. Power comes only when we stand in the truth, not in a shell.

Second, the disciples met together in Solomon's Colonnade. The church is a community that transcends everything—way of life, background, economic level—to experience unity in Christ.

Third, the church is not a community of human longing, but a community praised by the world. It is a place where you have to let go of the ways of the world and enter. Fourth, it is a growing community of believers. Those who are truly born again by the grace of the cross have a life force. That life is destined to give birth to another life. It's about making an impact. The life force flows from the church, and those who have embraced the gospel of life come into the community.

Fifth, unbelievers also recognize the spiritual authority of the disciples. People hoped that even Peter's shadow would be covered when he passed by. We look to those who are filled with the Spirit of Christ and long to be clothed with the grace of God.

Finally, sixth, it is a community that dreams and enjoys the Kingdom of God every day. Where we experience God's presence and reign, sickness leaves, darkness recedes, despair turns to hope, and groans of pain turn to prais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06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고넬료 집에 임한 하나님의 선물, ‘세례’

김재권 장로 (새생명비전교회, CA)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마 28:19) 이 말씀을 “대위임령”, “위임명령”, “지상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위임명령을 지키는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을 보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행 10:47)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요한의 세례만 아는 어떤 자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놓인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매우 구체적인 교회의 소명입니다. 세례는 교회의 목표이며 본질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가 ‘임의적 사명 변경’으로 인해 초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세례 예식을 이행함에 있어서 많은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결단 없이 행해지는 현대 교회의 세례 사역은 주님의 지상명령을 가볍게 여기며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들려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의 행복을 위해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세례를 통하여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십니다.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한 주된 공격이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복음주의적 증인들의 영적 건강이 점점 약화되는 상황으로부터 오고 있습니다. 세속주의는 단지 교회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커녕 다가오는 영혼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양육한 영혼들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세례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인식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의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단순한 친교모임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07

2023 AUGUST
월요일 • Mon

일꾼을 세우심

Chosen to Serv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효율적인 복음사역과 구제사역을 위해 일꾼 집사가 선택되고 제자의 수는 심히 많아집니다. 일꾼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테반이 잡힙니다.

🎵 새320장(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6:1-7

사도행전 6장

1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지므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2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5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Reading Insight

The number of followers increases dramatically as seven men are appointed for effective evangelism and relief outreach. Stephen, one of the seven, is taken prisoner.

🎵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6:1-7

Acts 6

1 Now in these days when the disciples were increasing in number, a complaint by the Hellenists arose against the Hebrews because their widows were being neglected in the daily distribution.

2 And the twelve summoned the full number of the disciples and said, “It is not right that we should give up preaching the word of God to serve tables.

3 Therefore, brothers, pick out from among you seven men of good repute, full of the Spirit and of wisdom, whom we will appoint to this duty.

4 But we will devote ourselves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5 And what they said pleased the whole gathering, and they chose Stephen, a man full of faith and of the Holy Spirit, and Philip, and Prochorus, and Nicanor, and Timon, and Parmenas, and Nicolaus, a proselyte of Antioch.

6 These they set before the apostles, and they prayed and laid their hands on them.

7 And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일곱 집사를 뽑는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3절)

What aspects were considered when choosing the seven men? (v. 3)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

Why was Stephen arrested at the council? (v. 1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일꾼의 자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Worker Requirements: “A Man of Repute, Full of the Holy Spirit and Wisdom”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일에 몰두되어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한 사람에게 여러 사역이 집중되어 일에 지쳐 번아웃(burnout, 탈진)을 경험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제자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급기야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도들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교회의 본질적 사역인 말씀(예배)을 제쳐 놓고 접대(일)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2절)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자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꾼을 택하게 됩니다. 탁월한 해결책입니다. 일꾼 집사들로 인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는 일할 일꾼도 필요합니다.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7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내’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해 봅시다.

Worshiping God, experiencing God’s presence, and having God’s grace are the core purposes of the church. Nowadays, many churches focus more on work than on praising God. As a result, conflicts between parishioners and between parishioners and pastors sometimes result in issues. Or, if numerous ministries are focused on a single person, that person may become burned out (exhausted) because of their efforts and perhaps leave the church.

The Holy Spirit’s work le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isciples. During this time, widows of Hellenists were neglected in the daily distribution. They eventually formed grudges against the Hebrews. The apostles assert that it is improper to gather the disciples while ignoring the central mission of the church—the Word (worship)—and partaking to serve tables (v. 2). However, the issue has yet to be fixed. Seven “people who are praised” among the disciples for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wisdom” are chosen to address the issue. Excellent response. The apostles are committed to prayer and the ministry of the Word because of the seven workers.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is worshiping God. You shouldn’t go to church to work. However, the church also requires labor to complete the work. “And the word of God continued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the disciples multiplied greatly in Jerusalem, and a great many of the priests became obedient to the faith” (v. 7). Let’s fervently pray that God will honor us and fill us with His wisdom and the Holy Spirit.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08

2023 AUGUST
화요일 • Tue

스테반의 설교

Stephen's Preaching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스테반은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구원자 되심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 새520장(통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7:30-38

사도행전 7장

30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31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34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35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36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37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Reading Insight

Stephen was martyred while rebuking the formal religious life of the Jews and preaching that only Jesus is the true savior.

🎵 Whosoever Heareth, Shout, Shout the Sound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7:30-38

Acts 7

30 “Now when forty years had passed, an angel appeared to him in the wilderness of Mount Sinai, in a flame of fire in a bush.

31 When Moses saw it, he was amazed at the sight, and as he drew near to look, there came the voice of the Lord:

32 ‘I am the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and of Isaac and of Jacob.’ And Moses trembled and did not dare to look.

33 Then the Lord said to him, ‘Take off the sandals from your feet,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34 I have surely seen the affliction of my people who ar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groaning, and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 And now come, I will send you to Egypt.’

35 “This Moses, whom they rejected, saying, ‘Who made you a ruler and a judge?’--this man God sent as both ruler and redeemer by the hand of the angel who appeared to him in the bush.

36 This man led them out, performing wonders and signs in Egypt and at the Red Sea and in the wilderness for forty years.

37 This is the Moses who said to the Israelites,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your brothers.’

38 This is the one who was in the congregation in the wilderness with the angel who spoke to him at Mount Sinai, and with our fathers. He received living oracles to give to u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 가운데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33절)
What did God say to Moses in the midst of the burning bush?
(v. 33)

공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난 후 스테반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55절)
What did Stephen look like after he finished his sermon at the public meeting? (v. 5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불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주인이 바뀐 삶

A Life with a Changed Owner

일곱 집사 중에 오로지 스테반의 이야기만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습니다. 회당에서 어떤 이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스테반의 변론을 당해낼 수 없게 되자 무리들을 선동해 스테반을 공의회로 끌고 왔습니다.

스테반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펼쳐놓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모든 예언과 구약의 모든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합니다. 스테반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성전과 몸의 할례가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며, 그들의 예배는 본질과 중심을 잃어버린 형식일 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외칩니다. 스테반의 설교 가운데 등장하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은 사람입니다. 성도 또한 가장 편안하게 느끼는 삶의 방식, 가치관, 세상의 모든 지식과 경험, 노하우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만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스테반의 시선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격분하여 이를 갈며 달려들 때에도 그의 시선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Of the seven deacons, only the story of Stephen is recorded in Acts. Stephen, full of grace and power, performed great wonders and signs among the people. Some people stood in the synagogue and argued with Stephen. When they could not stand Stephen's argument, they instigated the crowd and brought Stephen to the Sanhedrin.

Stephen preaches the long history of Israel from Abraham to Solomon and that Jesus is the one to whom all the prophecies and all the laws of the Old Testament point. Stephen speaks to the Jews. He cried out that they may have a temple and a physical circumcision, but they are those who are not circumcised in their hearts and ears and are against the Holy Spirit. Their worship is only a form of lost essence and focus, not a service that God receives. Moses, who appears in Stephen's sermon, obeys the voice of Jehovah God and takes off his shoes on the holy ground. Believers are also called to lay down the most comfortable way of life, values, and all the knowledge, experience, and know-how of the world and reveal only the holiness of God. It is to live a life in which Jesus is the Lord.

Stephen's gaze toward the Lord is unwavering. Even when the Jews gnashed their teeth in anger, his gaze only looked at Jesus standing at the right hand of God. I bless all of us to look only to Jesus, who i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09

2023 AUGUST
수요일 • Wed

예루살렘에 임한 큰 핍박

The Great
Persecution
in Jerusale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스테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거세게 불어 닥친 큰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이방선교로 이어지게 됩니다.

🎵 새505장(통268장) 온 세상 위하여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8:1-13

사도행전 8장

- 1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 2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 3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 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 5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 6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 9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 10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 11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 12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밋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 13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Reading Insight

After Stephen's martyrdom, the great persecution that raged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led to the dispersal of the Saints, which led to Gentile missions.

🎵 Christ for the Whole Wide World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8:1-13	Acts 8

1 And Saul approved of his execution. And there arose on that day a great persecution against the church in Jerusalem, and they were all scattered throughout the regions of Judea and Samaria, except the apostles.

2 Devout men buried Stephen and made great lamentation over him.

3 But Saul was ravaging the church, and entering house after house, he dragged off men and women and committed them to prison.

4 Now those who were scattered went about preaching the word.

5 Philip went down to the city of Samaria and proclaimed to them the Christ.

6 And the crowds with one accord paid attention to what was being said by Philip when they heard him and saw the signs that he did.

7 For unclean spirits, crying out with a loud voice, came out of many who had them, and many who were paralyzed or lame were healed.

8 So there was much joy in that city.

9 But there was a man named Simon, who had previously practiced magic in the city and amazed the people of Samaria, saying that he himself was somebody great.

10 They all paid attention to him, from the least to the greatest, saying, "This man is the power of God that is called Great."

11 And they paid attention to him because for a long time he had amazed them with his magic.

12 But when they believed Philip as he preached good news about the kingdom of God and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were baptized, both men and women.

13 Even Simon himself believed, and after being baptized he continued with Philip. And seeing signs and great miracles performed, he was amaze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고 표적이 일어났을 때 그 성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8절)

What happened when Philip preached in the city of Samaria? (v. 8)

빌립이 갑자기 사라진 뒤 에디오피아 내시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39절)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Ethiopian eunuch after Philip's sudden disappearance? (v. 3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목회자를 위한 기도

흩어짐은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God's Kingdom is Growing Through Scattering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성도들은 통곡하며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두려움과 엄청난 위기입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성도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흩어짐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전을 위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악을 미리 아시고 모조리 제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두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우리에게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환경과 아픔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마침내 이루어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간증하게 하시며, 대적들 앞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은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늘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고단한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일체의 비결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The scattering leads to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Great persecution was inflicted on the church in Jerusalem. Stephen was killed and believers wept and grieved deeply. There was unspeakable fear and a tremendous crisis. Believers, except the apostles, are scattered. But we see that God uses this scattering to advance the gospel.

We are reminded of what it means to be omniscient and omnipotent in God. Is God omniscient and omnipotent enough to know all evil in advance and eliminate it altogether? Yes, that is correct. God is capable of that. But God gives us strength and wisdom to overcome when we find ourselves in fearful and painful situations while keeping our faith. Even through miserable and painful circumstances, God's good plan is finally accomplished. The God who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is Almighty God. He allows us to testify of God's goodness and salvation in the world and to praise and glorify God before our enemies.

Those who have left Jerusalem and are scattered preached the gospel in scattered places. What was the key to their standing as disciples of Jesus and witnesses of the gospel regardless of any circumstance? They always listened to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They walked with Jesus. They obeyed God. I believe that this is the secret of victory to the end on the path of a weary life. Praise God for allowing us to transcend our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and to proclaim the gospel of grace and salvation that He has poured into our liv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혁으로



10

2023 AUGUST
목요일 • Thu

사울의 회심

Saul's Conversi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 새320장(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9:1-9

사도행전 9장

- 1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 2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 3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 4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 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 6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 7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 8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 9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Reading Insight

Saul meets Jesus on his way to Damascus to arrest and imprison the Christians and is converted.

🎵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9:1-9

Acts 9

1 But Saul, still breathing threats and murder against the disciples of the Lord, went to the high priest

2 and asked him for letters to the synagogues at Damascus, so that if he found any belonging to the Way, men or women, he might bring them bound to Jerusalem.

3 Now as he went on his way, he approached Damascus, and suddenly a light from heaven flashed around him.

4 And falling to the ground he heard a voice saying to him,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5 And he sai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6 But rise and enter the city, and you will be told what you are to do.”

7 The men who were traveling with him stood speechless, hearing the voice but seeing no one.

8 Saul rose from the ground, and although his eyes were opened, he saw nothing. So they led him by the hand and brought him into Damascus.

9 And for three days he was without sight, and neither ate nor drank.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1-2절)

To what extent did Saul persecute Christians? (vv. 1-2)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18절)

What happened when Ananias laid his hands on Saul? (v. 1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능동에서 진정한 능동으로

From Active to True Active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박해 그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하늘을 찌를 듯 살기등등한 기세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소개하는데 특히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더니 이 얼마나 엄청난 자신감이고 대단한 자신입니까? 그런데 사울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철저히 자기 의로 살아가는 능동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일은 본인에게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능동형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에 그는 땅에 고꾸라졌고, 눈은 떴으나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신념과 자기 의로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수동적인 삶이 됩니다. 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회복해야 할 진정한 능동적인 삶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은혜 안에 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인생입니다. 사흘 동안 요나가 깊은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사울도 사흘 동안 깊은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후 그의 눈에서는 무지의 비늘이 벗겨지고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눈이 되었습니다.

At the center of the persecution of the church in Jerusalem was Saul. Where did his sky-high vigorous enthusiasm come from? Paul introduces himself in Philippians 3 as a man who persecuted the church with zeal and was blameless in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What overconfidence and great conviction he had to call himself blameless by the law! But if we look inside Saul, we see an active human being who lives strictly in self-righteousness.

What Saul experienced on the road to Damascus must have been a shocking event for him, with the heavens falling. This is because he experienced that the self-sufficient human being, who was so confident, is incapable of doing anything on his own. The light from heaven caused him to fall to the ground. His eyes were open but he could not see, so he relied on the hands of others.

When a person encounters Jesus, a person who previously lived with self-belief and self-righteousness becomes a person who follows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In a sense, it becomes a passive life. But a life led by the Holy Spirit is the truly active life that any human being needs to recover. Hearing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and living in grace is a restored life of relationship with God. Just as Jonah was in the deep belly of a fish for three days, Saul experiences deep darkness for three days. Then the scales of ignorance are removed from his eyes and he sees Jesus with new eyes. My eyes are focused only on Jes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1

2023 AUGUST
금요일 • Fri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Peter Meets
Corneliu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본격적인 이방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백부장 고넬료 집안의 회심 사건으로써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베드로와 고넬료를 준비시켜주셨습니다.

🎵 새384장(통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10:9-18

사도행전 10장

9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 육 시더라

10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11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12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13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14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대

15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16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17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Reading Insight

It was the conversion of the centurion Cornelius that marked the beginning of a full-fledged Gentile mission, and God Himself prepared Peter and Cornelius in the midst of it.

🎵 All the Way My Saviour Leads Me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10:9-18	Acts 10

9 The next day, as they were on their journey and approaching the city, Peter went up on the housetop about the sixth hour to pray.

10 And he became hungry and wanted something to eat, but while they were preparing it, he fell into a trance

11 and saw the heavens opened and something like a great sheet descending, being let down by its four corners upon the earth.

12 In it were all kinds of animals and reptiles and birds of the air.

13 And there came a voice to him: "Rise, Peter; kill and eat."

14 But Peter said, "By no means, Lord; for I have never eaten anything that is common or unclean."

15 And the voice came to him again a second time, "What God has made clean, do not call common."

16 This happened three times, and the thing was taken up at once to heaven.

17 Now while Peter was inwardly perplexed as to what the vision that he had seen might mean, behold, the men who were sent by Cornelius, having made inquiry for Simon's house, stood at the gate

18 and called out to ask whether Simon who was called Peter was lodging ther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1-2절)

What kind of person is Cornelius? (vv. 1-2)

베드로는 환상 중 보자기에 담긴 짐승들을 어떻게 여겼나요? (14절)

How did Peter view the beasts in his vision? (v. 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God Leads Us Delicately

본문에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고넬료 집안의 회심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섬세한 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친히 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가운데 우리를 위한 오묘한 순서를 마련해 두십니다. 하나님은 신앙심이 깊었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기다리십니다. 고넬료가 하인들과 부하를 옴바로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큰 보자기 환상과 함께 이방인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친히 공유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구원과 그들도 받게 될 성령세례를 위해 베드로를 미리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보자기 환상과 함께 울려 퍼진 하나님의 음성은 베드로에게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의 동공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의 존재가 뿌리째 흔들릴만한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후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마침내 만나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서로 맞춰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사도이자 오순절 성령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런 그에게도 넘어서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혈연적 선민의식을 뛰어넘어 이방인 선교라는 새로운 지평을 친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The text features the conversion of the house of Cornelius, which marks the beginning of a full-fledged Gentile mission. In the midst of that event, we realize how delicate God's timetable and guidance are. God Himself makes a way. Through God's intervention, He sets a mysterious order for us. God sends an angel to Cornelius, who was deeply religious, to speak and wait. After Cornelius sent his servants and men to Joppa, God Himself shared with Peter a vision of God's heart for the salvation of the Gentiles. God prepared Peter in advance for the salvation of the Gentiles an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that they would also receive.

The voice of God echoed with the vision from the trance was a real shock to Peter. “Eat it. Do not call anything impure that God had made clean” were the shocking words that caused an earthquake in Peter's pupils and shook his existence to its roots. But God speaks to us in visions time and time again. How thrilling it was for Peter and Cornelius to finally meet and match the leading of God they experienced.

Peter was an apostle and a Pentecostal man who had experienced the filling of the Holy Spirit, but he certainly had limitations that he could not overcome. God Himself granted Peter a new horizon of Gentile missions beyond blood and rational choice. Even if we have not traveled, we believe that God Himself will guide us and walk on new horizon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혁으로



12

2023 AUGUST
토요일 • Sat

안디옥 교회

Antioch Churc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방인의 회심과 세례에 대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반발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변론하여 이방인 선교의 당위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새520장(통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11:19-30

사도행전 11장

19 그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예수를 전파하니

21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23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27 그 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28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29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30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Reading Insight

While Jewish Christians objected to the baptism and conversion of the gentiles, Peter received approval of the missionary work for the gentiles as he expounded on the sovereign providence of God.

🎵 Whosoever Heareth, Shout, Shout the Sound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11:19-30	Acts 11

19 Now those who were scattered because of the persecution that arose over Stephen traveled as far as Phoenicia and Cyprus and Antioch, speaking the word to no one except Jews.

20 But there were some of them, men of Cyprus and Cyrene, who on coming to Antioch spoke to the Hellenists also, preaching the Lord Jesus.

21 And the hand of the Lord was with them, and a great number who believed turned to the Lord.

22 The report of this came to the ears of the church in Jerusalem, and they sent Barnabas to Antioch.

23 When he came and saw the grace of God, he was glad, and he exhorted them all to remain faithful to the Lord with steadfast purpose,

24 for he was a good man, full of the Holy Spirit and of faith. And a great many people were added to the Lord.

25 So Barnabas went to Tarsus to look for Saul,

26 and when he had found him, he brought him to Antioch. For a whole year they met with the church and taught a great many people. And in Antioch the disciples were first called Christians.

27 Now in these days prophets came down from Jerusalem to Antioch.

28 And one of them named Agabus stood up and foretold by the Spirit that there would be a great famine over all the world (this took place in the days of Claudius).

29 So the disciples determined, everyone according to his ability, to send relief to the brothers living in Judea.

30 And they did so, sending it to the elders by the hand of Barnabas and Sau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에 성령이 내리는 걸 보며 떠오른 말씀은 무엇인가요? (16절)

What were the words that inspired Peter when he saw the Holy Spirit coming down onto the house of Cornelius? (v. 16)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한 후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23절)

What was the reaction of Barnabas having seen the evidence of the Holy Spirit when he came to Antioch? (v. 2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복음의 생명이면 충분합니다

The Vitality of the Gospel Is Enough

오늘 내 안에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안에 복음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어떤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만큼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회개의 영과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적잖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서 그 현장에 가득한 복음의 생명력을 느꼈을 때, 바나바는 기쁨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다면 감추려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의 기쁨을 함께 할 동역자가 간절해졌습니다. 그는 사울을 찾아내어 본격적으로 함께 사역을 펼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유한 이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 생명력 앞에서는 어떤 이론도, 어떤 주장도, 그 어떤 인간의 전략과 기술도 내세울 수 없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 가보니 거기에는 복음의 생명력이 넘치더라. 새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하더라. 그곳에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리 올만 했습니다. 또한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헌금으로 돕기까지 합니다. 모든 교회가 생명력이 흘러넘쳤던 안디옥 교회와 같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Are you experiencing the vitality of the Gospel in you today? More than anything, if the vitality of the Gospel is alive in us, we can clearly see the way that leads us to the kingdom of God in spite of chaos. At the news that the spirit of repentance and grace of salvation were given to even the uncircumcised gentiles, the churches in Jerusalem were quite embarrassed and confused. But when Barnabas arrived at the church in Antioch and witnessed the church full of the vitality of the Gospel, he could not but confess that with joy. When the Kingdom of God and the power of the Gospel are alive in me, I cannot hide it even if I try. Barnabas really needed a co-worker to share the joy of the ministry at the Antioch church. Barnabas sought Saul and they began the ministry together vigorously.

The faith we possess in God is not just knowledge but is life. Before such life, no theory, no argument, no human strategy or technique can stand out. When we visited a certain church, the vitality of the Gospel was overflowing. It was full of the work of God engendering new life. What else is needed in that place? The believers in the Antioch church deserved to be called Christians, the name us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ntioch church was a newly planted church but it raised a substantial amount of funds to aid the churches in Jerusalem. I hope and pray that all our churches become like Antioch church overflowing with vitalit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3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이민자로 이런 꿈을 꾸면 어떨까?

송정명 목사(미주 성시화운동 공동대표, 전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CA)

작년은 우리 한인들이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루기 위해 미주 땅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은 지 12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한인 이민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깊이 관여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민이 추진된 것은 1902년이었습니다. 그때는 고종황제가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통치하고 있던 광무 6년이었습니 다. 그 해 전인 1901년에는 나라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웠습니 다. 그럴 무렵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노동자를 보내달라는 청원을 받았지만 그 당시 국민 정서는 유교적인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물려준 고향 산천을 등지고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떠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제물포를 중심해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던 감리교 선교사 George Heber Jones(한국명: 조원시 선교사)가 주축이 되어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에게 이민을 적극 권면해서 30여 명의 내리감리교인들이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내리감리교회의 안정수 권사, 김이제 권사 같은 지도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계속해서 교인들이 58명으로 늘 어났다고 합니다. 한국 이민자들은 배 안에서부터 예배로 시작된 독특한 민족입니다.


그들은 하와이에 도착한 이후 열악한 여건 아래서도 창고 건물에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당시 하루 일당으로 ₩69를 받아 한 달 월급이 \$15-16 정도 되었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 \$300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은 농장주가 \$1,000을 도와주어

교회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교회가 그 당시 이민자들의 중심이 되고 교회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민 사회를 이끌어 나갔으며 한국 이민은 교회와 밀접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를 떠나서는 한인 이민 역사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한인 이민 역사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일본에 주권을 빼앗긴 이후 한동안 한국 이민은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1968년부터 개정된 이민법 시행에 따라 한국으로부터 의사, 약사, 간호사, 과학자와 같은 비교적 고학력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민자들이 대거 들어왔고 이민자들의 75%가 교회와 연관을 가지며 생활해 나갔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류 사회에서 한국 이민자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미주 지역 안에는 175개 이상의 소수민족들이 이민 와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이민 온 민족 가운데 이민으로 첫 번 도착한 날짜를 기념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 특별한 날을 정해서 기념해 준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연방 정부가 2004년에 대한민국 이민자들이 처음 미국에 도착한 날을 기념하여 1월 13일을 Korean American Day로 공식적으로 선포해주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시작된 한인 이민자들은 현재 2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미국 대학에서 교수로 섬기는 사람들이 3,500여 명이 되고 연방의회 의원, 시의회 의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도 많고 정부의 고위직 공직자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민자들의 후손 가운데 요셉이나 다니엘, 에스더 같은 신앙 좋은 청소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꿈나무 가운데도 미국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문화, 종교 분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굵은 재목, 큰 기둥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대통령도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꿈 말입니다. 너무 막연하고 허망한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을 보시지요. 그는 매일 양이나 몰고 다니며 지내던 목동이었고 당시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런 꿈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꿈을 꾸며 살면 어떨까요? 

14

2023 AUGUST
월요일 • Mon

베드로의 기적적인 탈옥

Peter Miraculously
Escaped from Priso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투옥된 베드로를 위해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헤롯은 급사하게 되었습니다.

🎵 새305장(통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12:1-12

사도행전 12장

1 그 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2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3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4 잡으매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 내고자 하더라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6 헤롯이 잡아 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8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걸음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10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11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12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Reading Insight

As the believers prayed together for Peter who was put in prison, they experienced the miraculous work of God. Herod, who had James put to death and imprisoned Peter, also died suddenly.

🎵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12:1-12

Acts 12

1 About that time Herod the king laid violent hands on some who belonged to the church.

2 He killed James the brother of John with the sword,

3 and when he saw that it pleased the Jews, he proceeded to arrest Peter also. This was during the days of Unleavened Bread.

4 And when he had seized him, he put him in prison, delivering him over to four squads of soldiers to guard him, intending after the Passover to bring him out to the people.

5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earnest prayer for him was made to God by the church.

6 Now when Herod was about to bring him out, on that very night, Peter was sleeping between two soldiers, bound with two chains, and sentries before the door were guarding the prison.

7 And behold, an angel of the Lord stood next to him, and a light shone in the cell. He struck Peter on the side and woke him, saying, "Get up quickly." And the chains fell off his hands.

8 And the angel said to him, "Dress yourself and put on your sandals." And he did so. And he said to him, "Wrap your cloak around you and follow me."

9 And he went out and followed him. He did not know that what was being done by the angel was real, but thought he was seeing a vision.

10 When they had passed the first and the second guard, they came to the iron gate leading into the city. It opened for them of its own accord, and they went out and went along one street, and immediately the angel left him.

11 When Peter came to himself, he said, "Now I am sure that the Lord has sent his angel and rescued me from the hand of Herod and from all that the Jewish people were expecting."

12 When he realized this, he went to the house of Mary, the mother of John whose other name was Mark, where many were gathered together and were pray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주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탈옥시킬 때 베드로는 언제 제정신이 들었나요? (10절)

As the angels of God helped Peter escape from the prison, when did Peter regain his normal senses? (v. 10)

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어디인가요? (12절)

Where did Peter rush first when he was freed from the prison? (v. 12)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교회의 존재 이유

The Raison d'être for the Church

핍박의 수위는 더 높아져 급기야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합니다. 베드로의 목숨도 촌각에 달려 있었을 때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으로 삼엄한 감시망과 철문을 지나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묶였던 자가 놓임 받게 되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돕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에 매인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는 아직도 묶여 있는 자들의 놓임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물질주의의 감옥, 인기와 명예의 감옥, 자존심과 교만의 감옥, 두려움과 염려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자가 자유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교회의 존재 이유를 모른 채 출석하기만 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교회는 교양을 쌓기 위한 곳이 아니며, 각박한 세상살이에서 심리적 위로만 얻는 곳도 아니고, 자기를 뽐내는 곳은 더더욱 아니며, 사회활동을 위한 곳도 아니고, 자녀들의 윤리 도덕을 위한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날마다 성도들의 섬김과 합심기도로 말미암아 매였던 자가 자유를 맛보고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The intensity of persecution was heightened and Apostle James was put to death. As Peter's life hung on the edge, the church began intercessory prayers for Peter. With the help of the angels Peter managed to evade tight surveillance and an iron gate and miraculously escaped. The prayers of the believers were answered. A church is a community that prays for and helps people bound in chains to be freed.

Without exception, all human beings are basically born as sinners bound to sins. All human beings are freed from sins because of the grace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That is the Gospel. The church is made up of those who experienced the Gospel, and the church has a mission for intercessory prayer to free those still bound to sins. Many people live in invisible prisons bound by chains. They live in the prison of materialism, the prison of popularity and privilege, the prison of pride and arrogance, and the prison of fear and worry. Our churches must pray for those bound to be free from bondage only through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f we still come to church without understanding the raison d'être for the church, it is really sad. The church is not a place to be better cultured, not a place to receive psychological comfort away from harsh life in a competitive world, not a place to be pompous, not a place to engage in social activity, nor a place to teach children ethics and moral values. The church should be a place to worship with joy as those who were in bondage to taste freedom from bondage through the daily collective service of Christians and their intercessory prayer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15

2023 AUGUST
화요일 • Tue

사울, 바울이 되다

Saul Became Pau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으며 처음으로 바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 새191장(통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13:1-12

사도행전 13장

1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밋 사울이라

2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5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6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8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9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아 니하겠느냐

11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12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Reading Insight

The first mission trip of Paul began, and the name Paul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the Bible.

🎵 I'm Rejoicing Night and Day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13:1-12	Acts 13

1 Now there were in the church at Antioch prophets and teachers, Barnabas, Simeon who was called Niger, Lucius of Cyrene, Manaen a member of the court of Herod the tetrarch, and Saul.

2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the Holy Spirit said,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3 Then after fasting and praying they laid their hands on them and sent them off.

4 So, being sent out by the Holy Spirit, they went down to Seleucia, and from there they sailed to Cyprus.

5 When they arrived at Salamis, they proclaimed the word of God in the synagogues of the Jews. And they had John to assist them.

6 When they had gone through the whole island as far as Paphos, they came upon a certain magician, a Jewish false prophet named Bar-Jesus.

7 He was with the proconsul, Sergius Paulus, a man of intelligence, who summoned Barnabas and Saul and sought to hear the word of God.

8 But Elymas the magician (for that is the meaning of his name) opposed them, seeking to turn the proconsul away from the faith.

9 But Saul, who was also called Pa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looked intently at him

10 and said, "You son of the devil, you enemy of all righteousness, full of all deceit and villainy, will you not stop making crooked the straight paths of the Lord?"

11 And now, behold, the hand of the Lord is upon you, and you will be blind and unable to see the sun for a time." Immediately mist and darkness fell upon him, and he went about seeking people to lead him by the hand.

12 Then the proconsul believed, when he saw what had occurred, for he was astonished at the teaching of the Lor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안디옥 교회가 예배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주신 음성은 무엇인가요? (2절)

What did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say when the Antioch church was worshiping and fasting? (v. 2)

바울이 전도를 방해하는 엘루마라는 마술사에게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10-11절)

What did Paul do to the sorcerer Elymas who interfered with Paul's mission? (vv. 10-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사울에서 바울로

From Saul to Paul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마침내 시작되는 1차 전도여행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은 이제 ‘작은 자’라는 뜻의 바울이 되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이었던 사울은 헬라식 이름의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택한 그릇이고, 마침내 바울의 전도여행이 시작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을 향해 유대인들의 박해가 끊임없이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사울이 아닌 바울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작은 자되어 십자가만 전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늘 바울의 가난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익한 종이라 고백할 때, 심령에서 샘솟는 기쁨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만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반대, 시기와 비방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이 아닌 성령의 만족케 하심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시기와 분노로 바울 일행을 내어 쫓을 때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하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할렐루야입니다.

The Antioch church appointed Barnabas and Saul as missionaries. At the very first mission trip, the name Saul was changed to Paul. “Big person” was the meaning of Saul and it was changed to a “small person” Paul. Saul was a Jewish name and it was changed to a Greek name Paul. This was meaningful. Paul was chosen by God to be an instrument as a missionary for the gentiles, and it means the first mission trip of Paul had begun. It also means that the persecution of Paul by the people of Judea would be relentless and persist without ceasing. Now Paul must live as Paul and not as Saul. He became the least and proclaimed only the cross. He lived as an evangelist of the Gospel as he lived for the LORD and as he died for the LORD. I pray and bless that the poor mind of Paul always lives in us.

As we confess to be worthless servants, I believe that we will experience peace from heaven and joy streaming from the spirit. We should not be eager to make ourselves more visible by claiming that we received grace, and we should be called and be used as a blessed life only to shed the aroma of Jesus wherever we go. Paul was never discouraged because of any opposition, jealousy or slander. This is the trait of people who understand and know satisfaction from the Holy Spirit and not from worldly satisfaction. As the Jewish people expelled Paul and his companions out of jealousy and anger, the Bible recorded, “Paul and Barnabas shook the dust from their feet in protest against them and went to Iconium. The disciples were filled with joy and with the Holy Spirit.” Halleluja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6

2023 AUGUST
수요일 • Wed

사람들에게 신이 될 뻔한 바울

Paul Almost
Became a God
to Those Peopl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남부지역에서 전도한 내용과 루스드라에서 앓은병이를 치유한 후 자칫하면 신으로 숭배받을 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새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14:8-18

사도행전 14장

8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 자라

11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3 시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18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Reading Insight

Today's scripture covers the incidents of how Paul and his companions evangelized in southern Asia Minor, how they healed a man crippled in his feet in the city of Lystra and how the crowd elevated Paul and Barnabas to the equals of Zeus and Hermes and almost worshiped them as gods.

🎵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14:8-18

Acts 14

8 Now at Lystra there was a man sitting who could not use his feet. He was crippled from birth and had never walked.

9 He listened to Paul speaking. And Paul, looking intently at him and seeing that he had faith to be made well,

10 said in a loud voice, "Stand upright on your feet." And he sprang up and began walking.

11 And when the crowds saw what Paul had done, they lifted up their voices, saying in Lycaonian, "The gods have come down to us in the likeness of men!"

12 Barnabas they called Zeus, and Paul, Hermes, because he was the chief speaker.

13 And the priest of Zeus, whose temple was at the entrance to the city, brought oxen and garlands to the gates and wanted to offer sacrifice with the crowds.

14 But when the apostles Barnabas and Paul heard of it, they tore their garments and rushed out into the crowd, crying out,

15 "Men, why are you doing these things? We also are men, of like nature with you, and we bring you good news, that you should turn from these vain things to a living God, who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all that is in them.

16 In past generations he allowed all the nations to walk in their own ways.

17 Yet he did not leave himself without witness, for he did good by giving you rains from heaven and fruitful seasons, satisfying your hearts with food and gladness."

18 Even with these words they scarcely restrained the people from offering sacrifice to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의 이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1, 13절)

What was the reaction of the people when they saw the wonders by Paul? (vv. 11, 13)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려 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14절)

What did Paul and Barnabas do when they found out that they were going to be worshiped as gods? (v. 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목회자를 위한 기도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All Glory Only Be to God

바울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걷게 합니다. 헬레니즘 문화권에 속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들은 성령이 바울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급기야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을 불러오고 온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까지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우리가 온 목적은 하늘과 땅의 주인, 창조주의 하나님을 전하러 왔고,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외치기 위함입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깊은 내면에는 욕망이 늘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 경배 받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은 축제를 벌이고 화려한 옷을 입고 높은 곳, 왕좌에 앉아 백성들을 향해 연설합니다. 그때 군중이 다 같이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에 취했기 때문에 벌레에 먹혀 죽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상과 믿음의 여정 곳곳에 자아도취하게 만들고 자기 영광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만드는 유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When Paul realized that a man crippled since birth had faith in his heart, Paul commanded him to get up and walk in the name of Jesus. People of Lystra were under the influence of Greek culture and tried to elevate Paul and Barnabas to gods. Not having experienced the power and miracle of God, there was no way that the people of Lystra could understand the Holy Spirit working through Paul. The people of Lystra called the priest of the temple of Zeus and were ready to worship before Paul and Barnabas. At this, Paul and Barnabas tore their clothes and spoke to them. “We are bringing you good news, telling you to turn to the living God, who made heaven and earth and sea and everything in them.”

All glory must be only to God. But deep inside human beings, covetousness always resides, a desire to be admired by and above people. In Acts 12, King Herod held a feast where he wore splendid clothes, sat on a high throne and made a speech to the people. Then the people shouted, “This is the voice of a god not a human being.” At this, Herod did not turn the glory to God but was intoxicated in his own glory so that he received judgment and was eaten by worms and died. There are many temptations to steal the glory of God by being intoxicated in self-glory or by falling into narcissism throughout our daily life and faith journey. On such occasions, I pray that we live our life giving glory only to God by remembering the grace of God who saved sinners like u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혁으로



17

2023 AUGUST
목요일 • Thu

예루살렘 회의

Conference
in Jerusale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 할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되었고, 회의 결과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기본진리가 확정됩니다.

🎵 새304장(통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15:1-11

사도행전 15장

1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2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의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3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4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6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리 모여

7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 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8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라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Reading Insight

To discuss the matter of circumcision of the gentiles for salvation, the conference of Jerusalem was arranged. At the end of the conference, the basic truth was established that salvation could only be attained by the grace of God.

The Love of God Is Greater Far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15:1-11	Acts 15

1 But some men came down from Judea and were teaching the brothers, “Unless you are circumcised according to the custom of Moses, you cannot be saved.”

2 And after Paul and Barnabas had no small dissension and debate with them, Paul and Barnabas and some of the others were appointed to go up to Jerusalem to the apostles and the elders about this question.

3 So, being sent on their way by the church, they passed through both Phoenicia and Samaria, describing in detail the conversion of the Gentiles, and brought great joy to all the brothers.

4 When they came to Jerusalem, they were welcomed by the church and the apostles and the elders, and they declared all that God had done with them.

5 But some believers who belonged to the party of the Pharisees rose up and said, “It is necessary to circumcise them and to order them to keep the law of Moses.”

6 The apostles and the elders were gathered together to consider this matter.

7 And after there had been much debate, Peter stood up and said to them, “Brothers, you know that in the early days God made a choice among you, that by my mouth the Gentiles should hear the word of the gospel and believe.

8 And God, who knows the heart, bore witness to them, by giving them the Holy Spirit just as he did to us,

9 and he made no distinction between us and them, having cleansed their hearts by faith.

10 Now, therefore, why are you putting God to the test by placing a yoke on the neck of the disciples that neither our fathers nor we have been able to bear?

11 But we believe that we will be saved through the grace of the Lord Jesus, just as they will.”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율법적 구원관은 무엇인가요? (1절)

What was the traditional Jewish view and Jewish law regarding salvation? (v. 1)

이방인 구원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11절)

What was the essence of Peter's argument in defense of salvation for the gentiles? (v. 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마음의 할례

Circumcision of the Heart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초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 율법의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몇몇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선교보고를 하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 문제를 가지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논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구원의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을 감찰하사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성령을 내려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데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 10:16)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귀하고 귀한 할례가 어느 순간 본래의 의미는 온데간데없고 형식만 남아버렸습니다.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진실 된 할례, 숨겨진 할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외식과 치장을 다 벗어버리고, 마음의 할례에서 오는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실 되고 온전히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God is clearly showing the way to salvation. In the faith community of the early churches, a group of Jewish Christians persistently claimed that the gentiles could attain whole salvation not by believing in the Gospel alone but also by receiving circumcision according to the law. Paul and Barnabas went to Jerusalem and reported the mission activities to the disciples and elders of the church. They engaged in discussions of the law of Moses and the circumcision matter regarding the gentiles that would remain as a monumental milestone in the history of Christianity.

We should be grateful to God for clearly showing us the way of truth to salvation. God made the disciples understand the fact that God would send the same Holy Spirit to the Jews and the gentiles and would cleanse their minds without any difference whatsoever between them, because God would only look at the hearts of the people, not their appearances. Salvation is attained only through the grace of Jesus Christ.

God already revealed in the Old Testament what true circumcision was. “Circumcise your hearts, therefore, and do not be stiff-necked any longer” (Deut 10:16). The precious and important circumcision that God permitted for the people of Israel had lost its original meaning and only the mere formality survived. God was saying that we should abandon mere formality and superficial circumcision and should restore truth in our hearts and true circumcision. I hope and pray that we throw away all embellishments and falseness within us so that we can experience the vitality and power that come from the circumcision of our hearts. I pray that our life will be truthful and a born-again life before Go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18

2023 AUGUST
금요일 • Fri

길을 막으시는 성령님

The Holy Spirit
that Blocked
the Path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2차 전도여행 중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가 막히고 마게도냐로 넘어가 유럽에서의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16:1-10

사도행전 16장

1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2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 받는 자니

3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고 있더라

4여러 성으로 다녀 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5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6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8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Reading Insight

During the second mission trip, the providence of God blocked continuation of the mission trip to the Asia Minor regions and redirected and began the evangelization of Europe beyond Macedonia.

🎵 Great Is Thy Faithfulness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16:1-10	Acts 16

- 1** Paul came also to Derbe and to Lystra. A disciple was there, named Timothy, the son of a Jewish woman who was a believer, but his father was a Greek.
- 2** He was well spoken of by the brothers at Lystra and Iconium.
- 3** Paul wanted Timothy to accompany him, and he took him and circumcised him because of the Jews who were in those places, for they all knew that his father was a Greek.
- 4** As they went on their way through the cities, they delivered to them for observance the decisions that had been reached by the apostles and elders who were in Jerusalem.
- 5** So the churches were strengthened in the faith, and they increased in numbers daily.
- 6** And they went through the region of Phrygia and Galatia, having been forbidden by the Holy Spirit to speak the word in Asia.
- 7** And when they had come up to Mysia, they attempted to go into Bithynia, but the Spirit of Jesus did not allow them.
- 8** So, passing by Mysia, they went down to Troas.
- 9** And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a man of Macedonia was standing there, urging him and saying,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 10** And when Paul had seen the vision, immediately we sought to go on into Macedonia, concluding that God had called us to preach the gospel to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1-2절)
How was Timothy introduced when he met Paul and his companions in Derbe and Lystra? (vv. 1-2)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후 바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10절)
What was Paul's reaction when he saw the vision at Troas? (v. 1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To Follow the Guide of the Holy Spirit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어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남부지역에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교회들을 든든히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가며 교회가 수적으로도 나날이 부흥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기뻐하고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북부지역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 쪽을 지나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땅을 밟기 원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될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방향을 틀으신다면 괜찮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걸 보는데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면 어떨겠습니까?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가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As the second mission trip began, Paul and Silas had an objective to revisit and strengthen those newly planted churches in the southern regions in Asia Minor during the first mission trip. As Paul witnessed that the churches were strengthened in the faith and grew daily in numbers, how do you think Paul felt? I think Paul was glad and satisfied. Then Paul had a plan to continue his mission trip to the northern regions of the Asia Minor. Passing through Phrygia and Galatia and passing Mysia, they planned to travel to the northern regions of Asia Minor. But God wanted Paul to travel to Europe, skipping Asia Minor.

When all is going well, it is not easy to obey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If God wants to redirect me if I am not doing well that's fine. But when churches are planted wherever I visit and we can witness those churches produce many fruits and yet God commands me to go somewhere else then what would you do? If there exists even a small amount of ego in me, I would rather complain than give thanksgiving.

The life of believers is to fulfill the will of God not our own. Then glory will be to God. We must believe in the goodness of God and goodness of all plans by God. God wants to give what is best for His children and plans big and great things that we do not know. He fulfills his will through those who obey Him. I pray that we affirm that we are all within God's plan even today and take a step of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19

2023 AUGUST
토요일 • Sat

아테네 전도

Mission Trip
to Athen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데살로니가와 베뢰아에서의 핍박 그리고 아테네에서의 전도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17:21-34

사도행전 17장

21 모든 아텐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복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32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들겠다 하니

33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34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Reading Insight

In today's scripture, the mission trip to Athens and the persecutions in Thessalonica and Berea were recorded.

🎵 Encamped Along the Hills of Light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17:21-34

Acts 17

21 Now all the Athenians and the foreigners who lived there would spend their time in nothing except telling or hearing something new.

22 So Paul, standing in the midst of the Areopagus, said: "Men of Athens, I perceive that in every way you are very religious.

23 For as I passed along and observed the objects of your worship, I found also an altar with this inscription, 'To the unknown god.' What therefore you worship as unknown, this I proclaim to you.

24 The God who made the world and everything in it, being Lord of heaven and earth, does not live in temples made by man,

25 nor is he served by human hands, as though he needed anything, since he himself gives to all mankind life and breath and everything.

26 And he made from one man every nation of mankind to live on all the face of the earth, having determined allotted periods and the boundaries of their dwelling place,

27 that they should seek God, in the hope that they might feel their way toward him and find him. Yet he is actually not far from each one of us,

28 for "In him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 as even some of your own poets have said, "For we are indeed his offspring."

29 Being then God's offspring, we ought not to think that the divine being is like gold or silver or stone, an image formed by the art and imagination of man.

30 The times of ignorance God overlooked, but now he commands all people everywhere to repent,

31 because he has fixed a day on whic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by a man whom he has appointed; and of this he has given assurance to all by raising him from the dead."

32 Now when they heard of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some mocked. But others said, "We will hear you again about this."

33 So Paul went out from their midst.

34 But some men joined him and believed, among whom also were Dionysius the Areopagite and a woman named Damaris and others with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과 실라의 복음전도를 시기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나요?

(5-6절)

What did the Jews do because they were jealous of the Gospel teachings of Paul and Silas?

(vv. 5-6)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가 격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6절)

Why was Paul so distressed when he entered Athens?

(v. 16)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세상 한복판에서 복음을 외치다

Paul Proclaimed the Gospel in the Middle of the World

사도바울은 모든 철학과 예술, 문화의 요람인 아테네에 들어갑니다. 헬레니즘의 심장부이자 최고의 도시에 바울이 입성한 것입니다. 세상 철학과 하나님 말씀의 충돌이며,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충돌입니다. 아테네에 사는 모든 사람은 주인이나 외국인이나 할 것 없이 새로운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일로만 시간을 보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도 그저 새로운 이야기거리로만 여기며 흥미를 갖습니다. 시골이나 지방 도시들에서 부흥을 일으킨 복음의 능력은 이 최고의 도시에서 동일하게 발휘될 수 있을까요? 사도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은 하다하다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세워놓은 것을 발견하고는 하늘과 땅의 주인, 모든 생명과 호흡의 주인은 하나님임을 전합니다. 바울이 회개와 심판, 부활의 메시지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더러는 비웃고 더러는 복음에 반응합니다. 마치 아테네 전도는 실패한 전도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전도는 숫자에 있지 않으며, 또한 그 열매를 맺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3,000명이 회심하든 열 사람도 채 안 되는 사람이 회심하든 어느 것이 더 큰 역사인지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실하게 복음의 씨를 뿌릴 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보십시오. 헬레니즘의 심장부에서도 지금 복음의 생명이 탄생되고 있습니다.

Apostle Paul entered Athens that was the cradle of all philosophies, arts, and cultures. Paul entered the heart of Hellenism and its best city. It was a clash between worldly philosophy and the Word of God, and a clash between Humanism and Theocracy. The Bible says that the people of Athens including residents and foreigners spent all their time talking about the latest ideas.

The people of Athens considered Jesus, who Paul was trying to introduce, as just another one of those latest ideas and showed little interest. Was the power of the Gospel that was accepted in rural towns and cities the same power of the Gospel to be accepted in the greatest city? Apostle Paul found in Athens an inscription that read "TO AN UNKNOWN GOD" and he declared that God was the master of heaven and earth and the master of all life and breath. As Paul delivered the message of repentance, judgment and resurrection, some sneered but still some became followers and believed. The mission journey to Athens might have looked like a failure. But it was not.

First of all, the number of conversions was not the primary goal of the mission journey and only God knows how fruitful the mission journey was. Human beings are incapable of judging what brought a more significant impact, whether it was the 3,000 converted or the less than 10. We must faithfully plant the seeds of the Gospel; be prepared in season and out of season. God will take care of the fruits of our planting and we just need to obey the Word of God. Look, even in the heartland of Hellenism the life of Gospel is now bor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0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했던 그 시절...”

김시온 목사 (미주성결교회웅기장이교회, CA)

어떤 분이 처음으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을 가리켜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여러 번 들어 보았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지만, 반드시 계시고,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실재!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에 주연 급으로 자주 출연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했던 모습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상황에 대해서 성령님의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또한 성령님이 성령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에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다이내믹하신 개입과 활동, 그리고 대단히 적절한 그분만의 처방과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노하우는 양보 없이 집행하는 정기기도시간이었습니다. “제 구시 기도시간에.”


지금의 사역 패턴과는 전적으로 달랐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루 일과 중, 가장 높은 집중도와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한창 뛰어다니고, 어떤 것이든 열정을 다해 달려가고 있을 법한 그 시간, 제 구시에, 즉 오후 세시에 그들의 의외로 아주 정적으로 보이는 기도의 자리로 향하고 있는 모습은 아무래도 낯섭니다. 얼마 뒤에 있을, 퇴근 시간 전까지 하나라도 더 끝마치고,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역으로 업무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나에게, 잠시 전화를 끄고, 모임과 회의를 중단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믿음과 모험을 요구하는 결단입니다. 긴급하게 걸려오는 전화와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하며, 중요한 회의를 미뤄야 하고, 응답해 줘야 할 결재서류들과 메모 쪽지들을 뒤로 한 채, 당장에 어떤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기도의 자리로, 그것도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건 보통의 인생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그 피와 같은 시간을 기도하는데 소진하며 사역한다는 것에 여전히 마음으로 충분한 동의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더 나아가 나와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이 가장 왕성하게 일해야 하는 그 시간에, 너무도 당당하게 핸드폰을 끄고 더 잘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그 부교역자들을 나는 선뜻 기도의 자리로 보내줄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어찌 되었든 사역 일과 중 중요한 시간을 내어, 정기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곳에 머물렀던 사도들의 사역적 열매와 성과는 오늘날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가에서 만났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돕기 위해 그들이 보여주었던 처방과 대책은 실로 역대급 해결책, 즉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다루어준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응답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적어도 기도의 자리에 정기적으로 앉아 있었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매우 중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의 생생하고도 입체적인 사역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은 감춰지고, 성령님은 더욱 왕성하게 일하시도록 더욱 그 기회와 자리를 내어드리는 비법, 기도예 집중된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했던 그 선배들의 모범을 따라가는 나의 오늘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1

2023 AUGUST
월요일 • Mon

예비된 하나님의 백성

Prepared People
of Go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고린도 지방에서의 복음전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새445장(통502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목성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18:1-11

사도행전 18장

- 1 그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 2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 3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 4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 5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 6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 7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 8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 11 일 년 육 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Reading Insight

Apostle Paul shared the gospel at Corinth. Silas and Timothy joined Paul. It was recorded how Paul met and worked with Aquila and Priscilla.

🎵 Walking in Sunlight All of My Journey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18:1-11	Acts 18

- 1 After this Paul left Athens and went to Corinth.
- 2 And he found a Jew named Aquila, a native of Pontus, recently come from Italy with his wife Priscilla, because Claudius had commanded all the Jews to leave Rome. And he went to see them,
- 3 and because he was of the same trade he stayed with them and worked, for they were tentmakers by trade.
- 4 And he reasoned in the synagogue every Sabbath, and tried to persuade Jews and Greeks.
- 5 When Silas and Timothy arrived from Macedonia, Paul was occupied with the word, testifying to the Jews that the Christ was Jesus.
- 6 And when they opposed and reviled him, he shook out his garments and said to them, "Your blood be on your own heads! I am innocent. From now on I will go to the Gentiles."
- 7 And he left there and went to the house of a man named Titius Justus, a worshiper of God. His house was next door to the synagogue.
- 8 Crispus, the ruler of the synagogue, believed in the Lord, together with his entire household. And many of the Corinthians hearing Paul believed and were baptized.
- 9 And the Lord said to Paul one night in a vision, "Do not be afraid, but go on speaking and do not be silent,
- 10 for I am with you, and no one will attack you to harm you, for I have many in this city who are my people."
- 11 And he stayed a year and six months, teaching the word of God among them.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비방하고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바울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6절)

What was Paul's reaction to the Jews who opposed and reviled him? (v. 6)

고린도에서 하나님ی 환상 중에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9-10절)

What did God say to Paul in a vision while Paul was in Corinth? (vv. 9-1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이곳에 나의 백성이 많다

I Have a Multitude of My People Here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당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각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로 넘쳐났고, 고린도는 방탕과 쾌락의 상징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전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 다. 물질주의와 음란으로 가득한 분위기는 복음전도에 있어 큰 도전이 되었고 또한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반대와 위협이 거세지고 있었습니 다. 그러나 거기서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가 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해 재회하면서 바울은 오직 전도에만 힘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며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이 성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문득 혼자라고 느껴질 때,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백성은 은혜를 덧입을 자들 그리고 이미 은혜를 맛보고 복음에 헌신된 자들 둘 다를 포함합니다. 물질주의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거룩과 믿음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오늘 나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Apostle Paul left Athens and arrived in Corinth. In those days, Corinth was a center of trade and marketing. There were lots of people from all around to earn money and Corinth became a place of pleasure and debauchery. Therefore, it was not easy to share the gospel in Corinth. It was a huge challenge to evangelize to people in a place filled with materialism and lewdness. Opposition by the Jews toward Paul was getting out of control. However, Paul met Aquila and Priscilla who became life partners in his ministry in Corinth. Also, Silas and Timothy joined Paul, so Paul could focus only on sharing the gospel of Jesus. God encouraged Paul to not be afraid but to keep on preaching the gospel. God told Paul that there were a multitude of God's people in Corinth.

When we walk the journey of faith, we often feel that we are alone and are overwhelmed by fear. We are called to remember that God is always with us and prepares people of faith to help us along the way. According to God, "my people" are both those who already experienced the grace of God and those who will be recipients of God's grace later. It is a great promise that God will protect His people to keep their holiness and faith even in the midst of the big waves of materialism. This is a wonderful gift from God. In our faith journey, God blesses us with many encounters with various people of faith. Blessings upon us, so we can be wonderful gifts to others with our fait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2

2023 AUGUST
화요일 • Tue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3차 전도여행의 중심지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새185장(통179장) 이 기본 소식을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19:1-10

사도행전 19장

- 1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 2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 3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 4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 5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 6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 7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 8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 9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 10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Reading Insight

Chapter 19 records Apostle Paul's ministry in Ephesus which was the main area of his third mission trip route.

🎵 Oh, Spread the Tidings 'Round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19:1-10	Acts 19

1 And it happened that while Apollos was at Corinth, Paul passed through the inland country and came to Ephesus. There he found some disciples.

2 And he said to them,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And they said, "No, we have not even heard that there is a Holy Spirit."

3 And he said, "Into what then were you baptized?" They said, "Into John's baptism."

4 And Paul said, "John baptized with the baptism of repentance, telling the people to believe in the one who was to come after him, that is, Jesus."

5 On hearing this, they were baptized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6 And when Paul had laid his hands on them,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and they began speaking in tongues and prophesying.

7 There were about twelve men in all.

8 And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for three months spoke boldly, reasoning and persuading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9 But when some became stubborn and continued in unbelief, speaking evil of the Way before the congregation, he withdrew from them and took the disciples with him, reasoning daily in the hall of Tyrannus.

10 This continued for two years, so that all the residents of Asia heard the word of the Lord, both Jews and Greeks.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2-3절)

What was Paul's question to Christians in Ephesus? (vv. 2-3)

바울이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심하게 비난할 때 취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9절)

What was Paul's response when some people harshly opposed the gospel and criticized Paul? (v. 9)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성령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에베소 교회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이상한 것을 하나 발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세례에 대해 아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얼마 전 성경에 참으로 능통하고 설교에 탁월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성경공부를 인도하고 예수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물세례만 알고 있을 뿐 성령세례는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와 복음에 대한 정확한 신학적 정립은 교회와 복음 전도에 두말할 것 없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전도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사도바울에게 있어 전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 가는 곳마다 성령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배워서 아는 세계를 뛰어넘어 성령충만을 통해 주인이 바뀐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2절) 바울도 아볼로처럼 설교하고 신앙훈련 시키고 성경공부하고 함께 살며 양육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성령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며 제자들에게 분부했던 말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나와 우리 가정, 자녀들에게 있어 길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무엇보다 성령세례를 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하고 진실 된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When Paul arrived at Ephesus, he found something strange there. Christians in Ephesus said that they accepted the gospel and believed in Jesus Christ, but they had never heard about the Holy Spirit. According to them, they were introduced to the gospel by Apollos who was very knowledgeable about scripture and great at preaching. Apollos led the bible study well for the Christians in Ephesus, but Apollo only knew about the baptism with the water, not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Of course, the talents of teaching and having the right theology are essential in sharing the gospel. However, evangelizing to others is much more than delivering certain knowledge. The sole purpose of sharing the gospel for Paul was to establish faith communities of the Holy Spirit wherever he went. This was a process of transforming lives of people fueled by the Holy Spirit who is far beyond the level of learning new knowledge and skills. People ultimately realized that the ownership of their lives belong to God. Paul asked the disciples of Jesus in Ephesus,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came Christians?” (v. 2). Paul also led bible studies and trained new Christians in teaching and examples just as Apollos did. For Paul, all these processes were for establishing communities of the Holy Spirit. This was the same focus as Jesus Christ who commanded His disciples to “wait for the Holy Spirit which was promised by Father” when he ascended to heaven.

For us, our family and our children, there is only one way. We all have to experienc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Regardless of their ages, let us pray and hope that our children will experience the Holy Spirit. I pray and hope that our children will be empowered by the Holy Spirit to become authentic and holy people of God to conquer this unholy and corrupted world.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3

2023 AUGUST
수요일 • Wed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On the Way
to Jerusalem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교회들을 순회 방문하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고별설교를 하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 새323장(통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20:13-24

사도행전 20장

13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결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14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15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16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려라

17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9 곧 모든 겹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20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는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1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22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Reading Insight

Apostle Paul visited several churches on the way to Jerusalem. In Miletus, Paul said goodbye and shared his farewell message with the Ephesus elders.

🎵 Call'd of God, We Honor the Call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20:13-24	Acts 20

13 But going ahead to the ship, we set sail for Assos, intending to take Paul aboard there, for so he had arranged, intending himself to go by land.

14 And when he met us at Assos, we took him on board and went to Mitylene.

15 And sailing from there we came the following day opposite Chios; the next day we touched at Samos; and the day after that we went to Miletus.

16 For Paul had decided to sail past Ephesus, so that he might not have to spend time in Asia, for he was hastening to be at Jerusalem, if possible, on the day of Pentecost.

17 Now from Miletus he sent to Ephesus and called the elders of the church to come to him.

18 And when they came to him, he said to them: "You yourselves know how I lived among you the whole time from the first day that I set foot in Asia,

19 serving the Lord with all humility and with tears and with trials that happened to me through the plots of the Jews;

20 how I did not shrink from declaring to you anything that was profitable, and teaching you in public and from house to house,

21 testifying both to Jews and to Greeks of repentance toward God and of faith in our Lord Jesus Christ.

22 And now, behold, I am going to Jerusalem, constrained by the Spirit,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23 except that the Holy Spirit testifies to me in every city that imprisonment and afflictions await me.

24 But I do not account my life of any value nor as precious to myself, if only I may finish my course and the ministry that I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to testify to the gospel of the grace of Go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밀레도에서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17절)

What did Paul do in Miletus on the way to Jerusalem? (v. 17)

바울이 성도들과 작별 인사하는 모습은 어떠했나요? (36-38절)

What was Paul's attitude when he said farewell to Christians in Miletus? (vv. 36-38)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목회자를 위한 기도

바울의 겟세마네 기도

Paul's Gethsemane Prayer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위해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는 이번 여정이 이전과는 다르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투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니, 바울과 일행은 드로아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앗소로 가게 되었는데 일행들만 배를 타고 앗소로 가고, 바울은 앗소까지 육로로 걸어가자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20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왜 혼자서 걸어가자 했을까요? 위협을 피하기 위해 그랬을까요? 다른 일행은 먼저 배를 태워 다 보내고, 홀로 도보로 간 것으로 보아 위협을 피하고자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걸으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고, 자신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 정결하게 준비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순종을 요구하는 여정이 지금 바울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길입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의 마음은 확정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4절) 작은 예수, 바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나머지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만나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입을 맞추며 작별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지켜보며 슬프지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Paul was informed by the Holy Spirit that his journey to Jerusalem this time (as he completed his third mission trip) to report his ministry was quite different from his previous journeys. He anticipated that persecution and imprisonment in Jerusalem were waiting for him. In verse 13, it is recorded that Paul and his group were on the way to Assos after completing their ministry in Troas. Paul wanted to walk to Assos which is about 20 miles and his group traveled by boat. Why did Paul want to walk the road from Troas to Assos by himself? Would it be for his safety to avoid any threat or danger? It did not look like his choice was because of safety, since he sent the rest of his group by boat and took the road by himself. My guess is that Paul needed time alone with God to prepare himself for his last mission and wanted to have time and space to be holy and prepared.

This is another missional time requiring full obedience. If it is human will only, Paul would not choose to take this journey. However, Paul made up his mind to be obedient to God's call. Paul confessed in verse 24. "But I do not count my life of any value to myself, if only I may finish my course and the ministry that I received from the Lord Jesus, to testify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We see little Jesus in Paul through this passage. Paul said his good-byes to those in his faith community with tears and kissed them as he began his journey to Jerusalem. As we imagine Paul's farewell scene in this chapter, we can confirm that it was sad but Paul was one of the best examples of joyful and happy missionari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4

2023 AUGUST
목요일 • Thu

바울의 체포

Paul Was Arrested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성도들의 만류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었으며 로마 천부장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 새391장(통446장) 오 놀라운 구세주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21:27-40

사도행전 21장

27 그 이레가 거의 차매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29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라

30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31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32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33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34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35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36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자고 외치며 따라 감이라

37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 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38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사천 명을 거르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39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40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Reading Insight

Apostle Paul went to Jerusalem despite the opposition of other Christians. He was seized by Jews and arrested by Roman centurions.

🎵 A Wonderful Saviour Is Jesus My Lord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21:27-40

Acts 21

27 When the seven days were almost completed, the Jews from Asia, seeing him in the temple, stirred up the whole crowd and laid hands on him,

28 crying out, “Men of Israel, help! This is the man who is teaching everyone everywhere against the people and the law and this place. Moreover, he even brought Greeks into the temple and has defiled this holy place.”

29 For they had previously seen Trophimus the Ephesian with him in the city, and they supposed that Paul had brought him into the temple.

30 Then all the city was stirred up, and the people ran together. They seized Paul and dragged him out of the temple, and at once the gates were shut.

31 And as they were seeking to kill him, word came to the tribune of the cohort that all Jerusalem was in confusion.

32 He at once took soldiers and centurions and ran down to them. And when they saw the tribune and the soldiers, they stopped beating Paul.

33 Then the tribune came up and arrested him and ordered him to be bound with two chains. He inquired who he was and what he had done.

34 Some in the crowd were shouting one thing, some another. And as he could not learn the facts because of the uproar, he ordered him to be brought into the barracks.

35 And when he came to the steps, he was actually carried by the soldiers because of the violence of the crowd,

36 for the mob of the people followed, crying out, “Away with him!”

37 As Paul was about to be brought into the barracks, he said to the tribune, “May I say something to you?” And he said, “Do you know Greek?”

38 Are you not the Egyptian, then, who recently stirred up a revolt and led the four thousand men of the Assassins out into the wilderness?”

39 Paul replied, “I am a Jew, from Tarsus in Cilicia, a citizen of no obscure city. I beg you, permit me to speak to the people.”

40 And when he had given him permission, Paul, standing on the steps, motioned with his hand to the people. And when there was a great hush, he addressed them in the Hebrew language, saying: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란 예언자가 바울의 체포를 예언하며 시연한 것은 무엇인가요? (11절)

What was the significance and meaning of the prophecy from Agabos, a prophet from Judea who prophesied about Paul's arrest? (v. 11)

바울이 성도들의 만류를 끝까지 거부하자 성도들이 한 고백은 무엇인가요? (14절)

What was the confession of other Christians when Paul did not listen to their sincere requests for him to not go to Jerusalem? (v. 1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사도바울의 보디가드

Paul's Bodyguards

바울은 성도들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하게 됩니다. 도시는 소란해지고 유대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로마 천부장은 군병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와서, 바울을 쇠사슬로 결박한 뒤 병영 안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사도바울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로 보이시나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는다면, 바울의 처한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둘러싼 로마의 천부장과 백부장, 군병들은 바울을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경호부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후로 출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장이 허락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바울은 쇠창살의 감옥과 함께 깊은 절망의 감옥에 묶인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빛을 계속해서 비추어내는 담대한 전도자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백부장과 모든 군병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기 위해 쓰시는 바울의 보디가드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안전하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Paul went up to Jerusalem despite strong opposition and begging from other Christian not to and he was seized by Jews. The whole city of Jerusalem was stirred by this news and some Jews incited others to take Paul out of the temple and kill him. Because of the uproar, the Roman commander came with soldiers, arrested and chained Paul and took him away. Do you see Paul as a criminal who is bound with two chains? If we open our eyes of faith and view the same situation, we can understand that everything is under God's sovereignty and Paul's circumstance definitely looks different.

The Roman centurions, tribunes and soldiers are actually the bodyguards for Paul from threats by the Jews. Interestingly, after the arrest, Paul had various opportunities to share the gospel and was free to share the amazing story of his own conversion with others. All this was possible because he was protected by the Roman military system. What an amazing story! Paul was not just a prisoner who was bound behind bars with deep despair and the feeling of failure, but a courageous missionary who shared the power of the gospel. The Roman soldiers, centurions and tribunes were all bodyguards whom God sent for Paul.

In any kind of crisis, God will protect and take care of His people. I pray that we will be blessed with the assurance that our souls are safe and secure in God and experience victory in Jesus tod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25

2023 AUGUST
금요일 • Fri

바울의 회개 간증

Paul's Testimony
of Repentanc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체포된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자신의 출생과 유대인으로서의 행적 그리고 회심한 경위를 침착하고도 담대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 새288장(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22:6-16

사도행전 22장

6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9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10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12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자가

13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14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16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Reading Insight

While under arrest, Apostle Paul calmly but boldly shared his birth origin, life journey as a Jew and conversion story in front of other Jews.

🎵 Blessed Assurance, Jesus Is Mine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22:6-16	Acts 22

6 “As I was on my way and drew near to Damascus, about noon a great light from heaven suddenly shone around me.

7 And I fell to the ground and heard a voice saying to me, ‘Saul, Saul, why are you persecuting me?’

8 And I answere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to me, ‘I am Jesus of Nazareth, whom you are persecuting.’

9 Now those who were with me saw the light but did not understand the voice of the one who was speaking to me.

10 And I said, ‘What shall I do, Lord?’ And the Lord said to me, ‘Rise, and go into Damascus, and there you will be told all that is appointed for you to do.’

11 And since I could not see because of the brightness of that light, I was led by the hand by those who were with me, and came into Damascus.

12 “And one Ananias, a devout man according to the law, well spoken of by all the Jews who lived there,

13 came to me, and standing by me said to me, ‘Brother Saul, receive your sight.’ And at that very hour I received my sight and saw him.

14 And he said, ‘The God of our fathers appointed you to know his will, to see the Righteous One and to hear a voice from his mouth;

15 for you will be a witness for him to everyone of what you have seen and heard.

16 And now why do you wait? Rise and be baptized and wash away your sins, calling on his na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표현했나요? (8절)

How did Jesus introduce Himself to Paul on the road to Damascus? (v. 8)

스데반이 순교 당하는 순간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20절)
What was Paul doing while Stephen was martyred? (v. 20)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나의 이야기가 가장 강력합니다

My Own Story Is Most Powerful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두 번에 걸쳐 공개석상에서 나눕니다. 첫 번째는 22장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체포된 직후 유대인들 앞에서이며, 두 번째는 26장에 아그립바 왕 앞에 서서 변론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무엇보다 나의 회개 이야기가 가장 강력합니다. 또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외롭고, 두려움에 휩싸일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난 회개 스토리는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나, 자기 의에 갇혀 살던 나, 기쁨 없이 껍데기로 살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주님은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신기하게도 사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의 만남은 전적으로 일대일 인격적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 친밀한 교제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가 아닌 나로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와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각 세대와 함께 하시고, 각 사람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과 함께 걷고 돌만 이야기 만들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Paul shared his conversion story twice in public. Once was in Chapter 22 when he was with other Jews and the other time was in front of King Agrippa when Paul was testifying about his faith. When you share the gospel, your own story of repentance and how you met Jesus Christ is the most powerful tool. There is something powerful about stories when you experienced the most difficult season of life and when you felt lonely, fearful and down, and how Jesus came into your life and saved you and changed you. There is power in changing people's lives when you share your own stories of when you were trapped in sins or self-righteousness or living miserably without joy, then Jesus came and transformed your life. Just like Jesus called Paul's name (it was Saul at that time), Jesus came and called our own names when we were on the path of destruction.

When Saul was hearing the voice of Jesus, interestingly no one around him heard the voice of Jesus. Meeting with Jesus Christ is one-to-one and a very personal encounter. When you talk to God often and share intimate fellowship with God, you become a genuinely happy person. Before God, we are not someone's son, someone's daughter nor someone's father or mother. We are just a person who stands alone before God. God waits for the confession and worship only I can give. Also God has the plan only I can accomplish. God is the companion for each generation and for each person at this moment. I pray that you will be blessed and have alone time with God and make your own unique story with God today.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6

2023 AUGUST
토요일 • Sat

위기 속 주님의 음성

God's Voice
in the Crisis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산헤드린에서 바울의 변론으로 인하여 유대 종교지도자들은 분노하고 그들 사이에 부활에 대한 논쟁이 불붙게 되었으며 바울을 죽이려는 시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 새540장(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23:1-11

사도행전 23장

1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 지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2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5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6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7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8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9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10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11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Reading Insight

Paul's defense at the Sanhedrin made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furious, igniting the controversial debate about the resurrection. It intensified their attempts to kill Paul.

🎵 I am Thine, O Lord, I Have Heard Thy Voice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23:1-11	Acts 23

1 And looking intently at the council, Paul said, “Brothers, I have lived my life before God in all good conscience up to this day.”

2 And the high priest Ananias commanded those who stood by him to strike him on the mouth.

3 Then Paul said to him, “God is going to strike you, you white-washed wall! Are you sitting to judge me according to the law, and yet contrary to the law you order me to be struck?”

4 Those who stood by said, “Would you revile God’s high priest?”

5 And Paul said, “I did not know, brothers, that he was the high priest, for it is written, ‘You shall not speak evil of a ruler of your people.’”

6 Now when Paul perceived that one part were Sadducees and the other Pharisees, he cried out in the council, “Brothers, I am a Pharisee, a son of Pharisees. It is with respect to the hope and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that I am on trial.”

7 And when he had said this, a dissension arose between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and the assembly was divided.

8 For the Sadducees say that there is no resurrection, nor angel, nor spirit, but the Pharisees acknowledge them all.

9 Then a great clamor arose, and some of the scribes of the Pharisees’ party stood up and contended sharply, “We find nothing wrong in this man. What if a spirit or an angel spoke to him?”

10 And when the dissension became violent, the tribune, afraid that Paul would be torn to pieces by them, commanded the soldiers to go down and take him away from among them by force and bring him into the barracks.

11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by him and said, “Take courage, for as you have testified to the facts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testify also in Rome.”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8절)

What caused the quarrel between the Pharisees and the Sadducees? (v. 8)

극심한 위협 가운데 놓인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와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11절)

What did the Lord say to Paul amid extreme threats against him? (v. 1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주의 음성이 모든 걸 이기게 합니다

God's Voice Enables Us to Triumph Over Everything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유대인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나고, 무리들은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죽이려고 몰려듭니다. 그럴 때마다 천부장은 바울을 병영 안으로 급히 들여놓곤 했습니다. 계속되는 극심한 위협 속에서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울아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11절) 한밤중에 경험하는 주님의 임재는 실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사도바울은 그를 둘러싼 핍박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불어넣어주시는 소명으로 가슴이 터질 듯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꿈꾸었던 로마행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비록 결박당해 끌려다니고 갇힌 신세이지만 그 모든 역경은 복음과 소명으로 충만한 바울을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로만 만족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만족과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소망과 새 힘이 솟아나고, 기쁨이 회복되며, 모든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산성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의 조직단체 소속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렵게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해 “용기를 내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고 소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more Paul preached the gospel, the more riots arose among the Jews, and the crowd rushed to kill Paul whenever they found the opportunity. Every time that happened, the commander-in-chief quickly brought Paul into the barracks. The Lord came to Paul amid extreme threats against Paul and said, “Take courage! As you have testified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also testify in Rome” (v. 11). The presence of the Lord in the middle of the night enabled Paul to overcome all fear. It made all fears of persecution disappear from Paul’s mind.

This newly revealed vision made his heart beat fast, as if it would explode. God answered Paul’s desire to go to Rome. Even though he was bound in chains, dragged around, and imprisoned, none of those adversities could discourage Paul, who was satisfied with the gospel and his calling.

We are created to be satisfied solely with the presence of God. Nothing other than God can be an object of our satisfaction and reliance. When we are in God’s presence, our renewed hope and new strength will spring up, joy will be restored, and all fear will disappear. We can confess that only God is our fortress, shield, and stronghold. Paul was unafraid of the 40 zealous men who swore not to eat or drink until they killed him. Are you in a situation that frightens you right now? I bless you to hear the Lord’s voice. I ask that you experience the presence of the Lord who tells you, “Be courageous, do not be afraid,” which will renew your calling.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27

주일 말씀 요약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하나님의 영광

김영희사모 (미주복음방송, CA)

“기도할 곳을 찾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게 하시는”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지독한 고난 중에 있는 삶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나 중에 주님 앞에 가면 꼭 여쭙 봐야지 하면서 덮어두었던 성도의 삶의 이야기다. 오래전 선교단을 섬기면서 모임이 있는 날이면 꼭 그 댁에 들러서 모시고 가서 함께 교제하며 예배를 드렸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다. 심한 장애를 가지고 계셔서 외출하려면 집사님 어머니와 함께 옷을 입히고 휠체어로 옮겨서 모시고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유일한 외출이어서 얼마나 기다리고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정확한 장애의 원인은 모르지만 전에는 학생을 가르치셨다고 하니 아마도 성인이 되어서 장애를 갖게 되신 것 같았다. 식사 시간에는 음식을 먹여드려야 했지만 예배 시간에는 불편한 두 손으로 꼭 손뼉을 치시면서 찬양하시며 기뻐하셨다.

집사님 어머님께서서는 의사이셨던 남편과 일찍 사별하신 감리교 장로님이셨다. 장로님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좁은 방에서 성경책이 펼쳐있는 작은 상을 앞에 놓으시고 늘 찬송하며 기도하시는 모습이였다. 어느 날 집사님을 픽업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장면을 보았다. 아들이라고 소개해 주신 분은 여자 집사님 보다 훨씬 장애가 심해 보였고 거의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았다. 장로님도 돌보심을 받아야 하는 연세이신데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나시고 심한 장애를 가진 두 자녀를 돌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과거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얼마나 후회할 일들이 밀려왔을까 이런 후회들은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죄의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이다.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았을 것을 등.

지금의 문제들을 가져온 요인들은 헤아릴 수없이 많았을 것이다. 정말 무엇 때문에 이런 아픔들이 있게 되었던 말인가 하면서. 소경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때문에’ 하면서 이유를 찾아내려고 수많은 질문을 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내세울 것 없는 한 인생을 보시면서, 그것도 온전치 못한 인생을 볼 때 ‘~때문에’가 100가지, 1000가지 넘었을 텐데, 그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이 소경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함이라고 하신다. 이보다 인간에게 더 좋은 표현이 있을 수 있을까?

장로님이 자식들로 인한 뼈아픈 고난 가운데서도 성경책이 놓여 있는 작은 상 앞에서 ‘~때문에’ 라는 질문을 덮으시고 말씀하시고 기도하고 찬송하실 때 바울 일행이 옥중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옥문이 열리게 하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것이다.

성도들의 고난이 싫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이중, 삼중으로 고난을 겪는 성도들을 보면 위로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 고난 중에 다른 쪽으로 꼭 흘러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내게 해달라고, 또 살아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드러내게 해달라고 담대히 기도한다.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Tis grace hath brought me safe thus far,
And grace will lead me home.

When we’ve been there ten thousand years,
Bright shining as the sun,
We’ve no less days to sing God’s praise
Than when we’d first begun.” 

28

2023 AUGUST
월요일 • Mon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

Before Governor Felix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고발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것과 바울이 사실에 근거하여 더돌로의 고소의 거짓됨을 반박하였습니다.

🎵 새176장(통163장)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24:22-27

사도행전 24장

22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23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24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25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26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27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 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Reading Insight

Paul was put on trial before Governor Felix because of the accusations by the Jewish leaders. Paul refuted the falseness of Tertullus' accusation based on facts.

🎵 When Jesus Comes to Reward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24:22-27	Acts 24

22 But Felix, having a rather accurate knowledge of the Way, put them off, saying, “When Lysias the tribune comes down, I will decide your case.”

23 Then he gave orders to the centurion that he should be kept in custody but have some liberty, and that none of his friends should be prevented from attending to his needs.

24 After some days Felix came with his wife Drusilla, who was Jewish, and he sent for Paul and heard him speak about faith in Christ Jesus.

25 And as he reasoned about righteousness and self-control and the coming judgment, Felix was alarmed and said, “Go away for the present. When I get an opportunity I will summon you.”

26 At the same time he hoped that money would be given him by Paul. So he sent for him often and conversed with him.

27 When two years had elapsed, Felix was succeeded by Porcius Festus. And desiring to do the Jews a favor, Felix left Paul in prison.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5-6절)

What did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accuse Paul of? (vv. 5-6)

벨릭스 총독은 바울이 어떤 설교를 할 때 두려워서 바울을 물러가게 했나요? (25절)

What sermon made Governor Felix fearful and send Paul back? (v. 25)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The Time to Wait and Persevere

가이사랴로 후송된 바울은 세 번에 걸쳐 재판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바울은 2년이 넘는 시간을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됩니다. 그 기간은 또 다른 역경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게 그 기간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믿기 때문입니다. 벨릭스 총독은 결박되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바울의 모습에 매료되었고, 바울을 때때로 불러내어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토론 하였습니다. 신앙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바울로부터 거액의 보석금을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2년 동안 재판을 보류한 채 바울을 계속 구금해 놓습니다.

창세기 40장의 요셉을 떠올리게 합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가 바로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고, 해몽해 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도록 도와주면 좋으련만, 그는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러갑니다. 드라마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만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떠올립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늘 예수님과 동행하길 원하고,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과 소명을 더욱 빛나게 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After Paul was transferred to Caesarea, he was tried three times and spent more than two years in prison. That season was another time of adversity. Everyone goes through a period of patience and waiting, but God's people can spend that season differently from the people of the world because they believe that God's promises and plans will never waver. Governor Felix was fascinated by Paul's bold preaching of the gospel even though he was a prisoner. Felix frequently sent for Paul and listened to what Paul had to say. He seemed interested in faith, but in reality, he secretly hoped for a bribe from Paul. Also, to win favor with the Jews, Felix kept Paul in custody for two years.

It reminds me of Joseph in Genesis 40. After being falsely accused and serving time in prison, he interpreted the dreams of Pharaoh's servants, and the interpretation became true. It would've been nice if the reinstated cupbearer could get Joseph out of prison, but he completely forgot about Joseph, and two years passed. How tragic. But guess what happened? Two years later, Pharaoh had a dream and the chief cupbearer remembered Joseph. However, we must realize this was the time God had perfectly ordained and planned. As we go through life's long waiting journey, I pray that you will walk with Jesus and that time will be the most blessed in deepening your faith and vocation.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29

2023 AUGUST
화요일 • Tue

계속되는 바울의 재판

The Continued
Trial of Paul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25장은 베스도의 재판에서 바울의 혐의는 여전히 입증되지 못했다는 것과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것, 26장은 아그립바 왕 앞에서 바울의 최후 변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새520장(통257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목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25:6-12

사도행전 25~26장

6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팔 일 혹은 십 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니

8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10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12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Reading Insight

Chapter 25 records Paul's charges still being unproven at Festus' trial and Paul's appeal to the Roman emperor. Chapter 26 records Paul's final argument before King Agrippa.

🎵 Whosoever Heareth, Shout, Shout the Sound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25:6-12

Acts 25~26

6 After he stayed among them not more than eight or ten days, he went down to Caesarea. And the next day he took his seat on the tribunal and ordered Paul to be brought.

7 When he had arrived, the Jews who had come down from Jerusalem stood around him, bringing many and serious charges against him that they could not prove.

8 Paul argued in his defense, "Neither against the law of the Jews, nor against the temple, nor against Caesar have I committed any offense."

9 But Festus, wishing to do the Jews a favor, said to Paul, "Do you wish to go up to Jerusalem and there be tried on these charges before me?"

10 But Paul said, "I am standing before Caesar's tribunal, where I ought to be tried. To the Jews I have done no wrong, as you yourself know very well.

11 If then I am a wrongdoer and have committed anything for which I deserve to die, I do not seek to escape death. But if there is nothing to their charges against me, no one can give me up to them. I appeal to Caesar."

12 Then Festus, when he had conferred with his council, answered, "To Caesar you have appealed; to Caesar you shall go."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베스도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으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9절)

Why did Festus ask Paul to go to Jerusalem for trial? (v. 9)

바울이 외친 예언자들 중에 모세가 예언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26:23)

Paul testified from the account of the prophets and Moses. What did Paul say about Moses' prophecy? (Acts 26:23)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죄목 없는 죄수

A Prisoner Without a Crime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유죄판결을 내릴 것을 끈질기게 요구하지만 그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죄목을 만들려고 해도 입증할 증거는 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민에 빠진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이라도 얻을 목적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재판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에 바울은 지혜롭게 처신합니다.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는 바입니다.” (11절) 바울은 결코 서두르거나 조바심 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처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주하거나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조바심이 나고 바빠지는 것은 대적들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격하는 자들의 악하고 불의함이 드러나게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함을 하고, 거짓 증언들을 내세웠지만 베스도 총독의 입을 통해 결론지어진 것은 바울에게는 아무 혐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죄목이 없는 죄수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담대히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예수 십자가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결단코 정죄할 수 없으며, 악한 자는 결국 자기의 악한 꾀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The Jews persistently accused and demanded that Paul be condemned, but Festus found all those charges baseless. No matter how hard the Jews tried to make him found guilty, they could not come up with any evidence to prove it. Festus was confused and asked Paul to go up to Jerusalem for a trial to win the hearts of the Jews. At that time, Paul responded wisely. Paul says emphatically. “If I am guilty of doing anything deserving death, I do not refuse to die. But if the charges brought against me by these Jews are not true, no one has the right to hand me over to them. I appeal to Caesar” (v. 11). Paul didn’t make a hasty or impatient decision but accurately recognized and responded to a situation with wisdom from God.

A person of God does not need to be anxious or impulsive. This will then make their enemies more anxious and nervous, and eventually, their unrighteous schemes and their deceit will be exposed. Although the Jews made false accusations and presented false testimonies, Governor Festus concluded that Paul was not guilty of any charges brought against him. Paul was an innocent prisoner, which made no sense.

We need to walk boldly in God’s guidance. No matter how much Satan intimidates us, he will never be able to condemn the faithful follower of God who belongs to the cross of Jesus, and the wicked will eventually stumble and fall by their evil scheme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facebook @기쁨의 연대로



30

2023 AUGUST
수요일 • Wed

바울의 이탈리아행

Paul's Trip to Italy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들겠습니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바울의 험난한 로마행 항해와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닥친 위기 속에서 바울의 영적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새68장(통32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27:13-25

사도행전 27장

13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16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17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18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19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20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21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매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22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23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나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25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Reading Insight

Today's chapter records Paul's influence as a spiritual leader during the crisis of the rough voyage to Rome and the stormy winds of Eurasia.

🎵 We Praise Thee, O God, our Redeemer, Creator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27:13-25	Acts 27

13 Now when the south wind blew gently, supposing that they had obtained their purpose, they weighed anchor and sailed along Crete, close to the shore.

14 But soon a tempestuous wind, called the northeaster, struck down from the land.

15 And when the ship was caught and could not face the wind, we gave way to it and were driven along.

16 Running under the lee of a small island called Cauda, we managed with difficulty to secure the ship's boat.

17 After hoisting it up, they used supports to undergird the ship. Then, fearing that they would run aground on the Syrtis, they lowered the gear, and thus they were driven along.

18 Since we were violently storm-tossed, they began the next day to jettison the cargo.

19 And on the third day they threw the ship's tackle overboard with their own hands.

20 When neither sun nor stars appeared for many days, and no small tempest lay on us, all hope of our being saved was at last abandoned.

21 Since they had been without food for a long time, Paul stood up among them and said, "Men, you should have listened to me and not have set sail from Crete and incurred this injury and loss.

22 Yet now I urge you to take heart, for there will be no loss of life among you, but only of the ship.

23 For this very night there stood before me an angel of the God to whom I belong and whom I worship,

24 and he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all those who sail with you.'

25 So take heart, men, for I have faith in God that it will be exactly as I have been told.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계속되는 거센 풍랑에 선원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18-19절)

What actions did the sailors take in the raging storm? (vv. 18-19)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향해 바울이 안심시키며 한 말은 무엇인가요? (24절)

What did Paul say to reassure those who were gripped by fear? (v. 24)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목회자를 위한 기도

풍랑 속 선장은 누구인가?

Who Is the Captain in the Face of the Storm

바울의 로마 압송이 결정되고,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뉘테노호를 타고 무라까지, 그리고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 이탈리아로 출항했습니다. 크레타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중 유라굴로 광풍을 만납니다. 결국 배는 폭풍에 휘말려 견잡을 수 없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하고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살기 위해 짐들을 바다에 내던지고, 중요한 장비들마저 던져 버립니다. 선장도 백부장도 지휘권을 상실한 절망적인 상황이고,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겠다.’” (22-24절)

역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성령의 사람을 드러내십니다. 풍랑 속 선장은 누구이며,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풍랑 속, 성령의 사람이 리더입니다. 바울이 배에 있는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 그제야 사람들이 먹을 정도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오직 바울의 말에만 용기를 얻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When it was decided that Paul would go to Rome, he boarded a ship from Adramyttium to Myra. From Myra, they put Paul on an Alexandrian ship sailing for Italy. While sailing along the coast of Crete, a deadly hurricane swept over the ship. The ship was caught in a storm and drifted out of control. Everyone on board was terrified in the face of the incredible power of nature. To survive, they threw their cargo into the sea and even threw away essential equipment. The captain and the centurion were in despair as they lost command, and everyone lost hope to live. Then Paul said

“I urge you to keep up your courage because not one of you will be lost; only the ship will be destroyed. Last night an angel of the God to whom I belong and whom I serve stood beside me and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trial before Caesar, and God has graciously given you the lives of all who sail with you’” (vv. 22-24).

Through the grace of God, the whole situation shifted. The Holy Spirit revealed himself through the hurricane “Northeaster.” Who is the true captain and commander in the face of the deadly storm? The fearless man under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is the leader. When Paul encouraged them to eat, they were able to do so. People were gaining strength through Paul’s words. Christians are to have that type of identity. Because our Lord is always with us, we can confess, “Whether the road I take in my life is easy like a calm river or frightening with threatening storms, my soul is always at peace.” Hallelujah!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YouTube @기쁨의 연덕으로



31

2023 AUGUST
목요일 • Thu

바울의 로마 입성

Paul Enters Rome

여는기도 Opening Prayer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맥잡기

몰타섬에서 겨울을 난 뒤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여 로마 성도들과 기쁜 만남과 교제를 하는 내용과 계속되는 전도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 새336장(통383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묵상본문

통독본문

사도행전 28:11-22

사도행전 28장

11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12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14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15 그 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16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7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18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19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20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죄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1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22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Reading Insight

The chapter records Paul's final arrival in Rome after winter in Mata. It tells us that Paul was experiencing joyous fellowship with the believers in Rome and his continued evangelism.

Faith of Our Fathers

Meditation	Reading Plan
Acts 28:11-22	Acts 28

11 After three months we set sail in a ship that had wintered in the island, a ship of Alexandria, with the twin gods as a figurehead.

12 Putting in at Syracuse, we stayed there for three days.

13 And from there we made a circuit and arrived at Rhegium. And after one day a south wind sprang up, and on the second day we came to Puteoli.

14 There we found brothers and were invited to stay with them for seven days. And so we came to Rome.

15 And the brothers there, when they heard about us, came as far as the Forum of Appius and Three Taverns to meet us. On seeing them, Paul thanked God and took courage.

16 And when we came into Rome, Paul was allowed to stay by himself, with the soldier that guarded him.

17 After three days he called together the local leaders of the Jews, and when they had gathered, he said to them, "Brothers, though I had done nothing against our people or the customs of our fathers, yet I was delivered as a prisoner from Jerusalem into the hands of the Romans.

18 When they had examined me, they wished to set me at liberty, because there was no reason for the death penalty in my case.

19 But because the Jews objected, I was compelled to appeal to Caesar--though I had no charge to bring against my nation.

20 For this reason, therefore, I have asked to see you and speak with you, since it is because of the hope of Israel that I am wearing this chain."

21 And they said to him, "We have received no letters from Judea about you, and none of the brothers coming here has reported or spoken any evil about you.

22 But we desire to hear from you what your views are, for with regard to this sect we know that everywhere it is spoken against."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로마에 들어간 바울에 대한 군인들의 대우는 어떠했나요? (16절)

How did the soldiers treat Paul when he entered Rome? (v. 16)

로마에서도 계속된 바울의 전도사역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30-31절)

What did Paul's evangelism work look like in Rome?

(vv. 30-31)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순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마침내 바울이 로마에 입성하다

Paul Finally Enters Rome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로마 압송이 아니라 로마 입성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입성이라뇨?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마침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황제의 도시, 로마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로마 도착은 편지뿐만 아니라 교제하던 로마에 있던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3차 전도여행 말기에 고린도에 석 달 정도 머물면서 스페인 전도여행을 꿈꾸는 가운데 로마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서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며 복음의 진수, 십자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겐그레아 출신의 보비를 통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일까지 마중 나와 바울과 기쁘게 만나 교제하였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쇠사슬에 매인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에 입성시키셨습니다.

세상은 바울의 몸을 결박했을지 모르지만, 바울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는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팬데믹의 어떤 험난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 사도행전적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aul finally arrives in Rome. This was a voluntary entry into Rome, not one of coercion. It can't be defined as a prisoner's transfer. Friends, after studying Paul's journey, we can now understand through the lenses of God's providence. It was God's providence that Paul was brought to Rome, the city where the emperor resides, to accomplish God's will fully. Paul's arrival in Rome was news of great joy to the believers in Rome, who were only communicating through letters. The Book of Romans is a letter written by the Apostle Paul to the church in Rome while he stayed in Corinth for about three months at the end of his third missionary journey. Paul deeply desired to visit Rome to secure assistance for further missionary work in Spain. In that letter, Paul praised the faith of the Roman believers. He also systematically summarized the essence of the gospel and the core contents of the gospel of the cross, which was delivered through Phoebe of Cenchrea. The Roman believers met him at the Forum of Appius and the Three Taverns, where they happily met and fellowshiped with Paul. Paul was bound in chains for the sake of Jesus Christ, but God brought Paul to Rome.

The world may have bound Paul's body, but the Holy Spirit actively working in Paul could not be restrained. God's Word will never be bound. No pandemic shutdown can stop the history of God working through the lives of the church and believers. The Book of Acts is the Acts of the Holy Spirit. This is the story of people who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that all of us will become people of the Holy Spirit and live the life of the people who are recorded in the Book of Acts.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1

2

3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순기도 One Prayer ☐

*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Today's Mission Cleared 

facebook @기쁨의 연덕으로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인이민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이민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Church.

한인이민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Korean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tphdevotion@gmail.com

소그룹 교재

2023
08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새500장(통258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새263장(통197장) 이 세상 험하고
새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는 질문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본문 이해

제 구시 기도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도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 번의 강력한 영적체험만으로는 치열한 우리 일상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기에 턱없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계속되는 기도의 삶에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로, 기도 중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선순위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제 구시는 오늘날의 오후 세 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드리는 기도, 잠자리에 들기 전 드리는 기도, 식사기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제 구시는 오늘날의 오후 세 시입니다. 일상이 한참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복판을 의미합니다. 처리해야 할 일도 많고 즐겨야 할 것도 많은 그 시간, 하던 일을 중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일상 속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전 다녔던 찬양학교 워십 리더를 떠올리게 됩니다. 매일 아침마다 강당에서 들려지는 예배는 참으로 뜨겁고 은혜로웠습니다. 뜨거운 성령의 임재로 예배는 정해진 시간을 넘기게 되고 1교시 수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워십 리더를 다들 좋아했고, 가까이하고 싶어서 점심시간이 되면 워십 리더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식사도 같이하고 웃음꽃을 피우는 대화의 시간을 갖곤 했습니다. 그런데 워십 리더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어느 시간이 되면 급히 자리를 뜨곤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시간은 개인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은 그 무엇에도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기름부음이 있는 예배의 비밀을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도 중심의 삶에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둘째로, 기도의 삶은 늘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못 걷는 자를 향해 말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으로 당신에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6절) 예수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그 병자에게 예수의 이름, 구원과 능력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수도관이 수원에 연결되어 수도꼭지를 틀면 물을 쏟아내듯이, 계속되는 기도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어 그분의 능력과 구원하심을 널리 전하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말씀 속으로

-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충만을 경험한 뒤 기도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치유 받고 한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삶 속으로

- 일상 속 나의 기도시간을 점검해 보고, 소망하는 기도생활은 무엇인가요?
-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암송 구절 | 사도행전 3: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녀와 나눔

전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더욱 충만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 봅시다.

진정으로 능동적인 삶이란



새320장(통35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새484장(통533장)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새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는 질문

내가 생각하는 능동적인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본문 이해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 그 중심에는 사울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사울의 율법수호를 위한 열심을 막을 자는 없어 보입니다. 하늘을 찌를 듯 한 그의 살기등등한 기세는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팔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다.” (빌3:5-6)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니, 이 얼마나 엄청난 자신감이고 대단한 확신입니까?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철저히 자기 의로 살아가는 능동적 인간의 모습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일은 사울 자신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에 그는 땅에 고꾸라졌고, 눈은 뗐으나 볼 수 없어 다른 사람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신념과 자기 의로 살아가던 사람이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게 됩니다. 철저히 능동적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 수동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동적인 삶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능동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삶이기에 그렇습니다.

사흘 동안 요나가 깊은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간 것처럼 사울도 사흘 동안 깊은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의를 내려놓은 시간이었습니다. 철저히 능동적이었던 모든 삶의 방식이 붕괴되는 시

간이었습니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의 눈에서는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부릅뜨고 다녔던 눈은 예수님께만 바라보는 눈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바삐 움직였던 발은 모든 구약의 예언과 모든 율법이 가리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발이 되었습니다. 전에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온 힘을 다 쏟았다면 이제는 성령에 사로잡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생명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신념과 힘만을 의지하고 살았던 삶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요?

삶 속으로

- 나도 사울처럼 나만의 신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이 있나요?
- 나도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과 같이 가치관이 바뀐 경험이 있나요?

암송 구절 | 사도행전 9:5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니

자녀와 나눔

개인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람을 존경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새324장(통360장)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말씀하시면

여는 질문

삶의 이치를 잘 몰랐던 시절에는 어른들의 조언이 때로 이해가 가지 않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들이 후에 이해가 간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본문 이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때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소아시아 남부 지역에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여 교회들을 든든히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떠났다가 그곳의 성도들과 재회하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가며 교회가 수적으로도 나날이 부흥하는 것을 볼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기뻐하고 만족스러웠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 북부지역으로 올라가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브루기아와 갈라디아지방을 거쳐 무시아 쪽을 지나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은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 남쪽의 영적부흥이 곧바로 북쪽까지 확장되기를 원했지만 성령이 그 일을 막으십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잘 되고 있을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방향을 틀으신다면 괜찮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겠습니까? 내 자아가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먼저 나올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민수기 9장에 보면, 광야를 통과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온 이스라엘 백성도 머물러 진을 칩니다. 구름이 머

무는 기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틀이 될지 한달이 될지, 일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막을 치고 모든 기구를 제자리에 설치했고 수 백 만의 백성이 진영을 가다듬고 머물 준비를 다 끝냈는데 그때라도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은 짐을 다시 꾸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으면 저도 모르게 불평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붙들어야 하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며,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으로

-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만난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나요?
-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본 후 사도바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삶 속으로

-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 방법들은 무엇이었나요?
-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누렸던 은혜가 있나요?

암송 구절 | 사도행전 16:9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녀와 나눔

내가 생각하는 길과 계획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부모님은 다르게 조언하실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 해 봅니다.

폭풍우 속 진정한 선장



새373장(통503장) 고요한 바다로
새540장(통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새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여는 질문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본문 이해

마침내 바울의 로마압송이 결정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뭇데노호를 타고 무라까지 가고,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고 이탈리아를 향해 출항하였습니다. 항해하던 중 바울은 풍랑이 거세질 것을 염려해서 항해를 잠시 멈출 것을 제안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결박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신세이니 누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백부장도 선장과 선주도 바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크레타섬 해안을 따라 항해하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폭풍에 휘말려 건잡을 수 없이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하고 자연의 거대한 위력 앞에 한없이 무력한 존재임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 싣고 있던 짐들을 바다에 내 던지고, 중요한 장비들마저 배 밖으로 던져 버립니다. 선장도 백부장도 지휘권을 상실한 절망만이 있는 상황이었고 모든 사람이 살 소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바울이 말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잃을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기셨다.’” (22-24절) 역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십니다. 지금 알렉산드리아호의 선장은 누구이며, 지휘관은 누구입니까? 거센 풍랑 속, 성령의 사람이 리더입니다. 본문에 재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주가 지날 때까지 모두가 마음만 졸이고 있을 뿐 음식을 먹을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음식을 꺼내오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 먹으니 그제서야 사람들도 용기를 얻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이 오직 바울의 말에 용기를 얻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말씀 속으로

-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 바울은 어떤 말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안심시켰나요?

삶 속으로

- 인생의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암송 구절 | 사도행전 27: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녀와 나눔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요? 친구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는 어떤 말로 위로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내 주변 친구들 중에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나눠봅시다.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Throw Out the Life Line
I Hear the Saviour Say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Opening Discussion

Out of everything I have, what do I wish to share with others and what can I do?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Peter and John headed up to the temple at the ninth hour, which was the time for prayer. This demonstrates that even after the Holy Spirit descended on Pentecost, the disciples continued to live a life centered on prayer. We are also blessed when our prayers never end. It is because we are too frail to survive with only one potent spiritual encounter in our lives, revealing the fragrance of Jesus in our ordinary lives and in the hostile world.

In a life of constant prayer, miracles take place. First, a life prioritized around prayer is one that God is pleased with. Today around three o'clock in the afternoon is my ninth hour. Prayer over a meal, prayer before bed, and prayer when you get up in the morning are all prayers that delight God. My ninth hour is three o'clock in the afternoon, when Peter and John walked up to the temple to pray. It refers to the time in the middle of the day when daily life has been going on for a while. Stop what you're doing and head to the place of prayer even when there are several tasks to complete and numerous pleasures to experience. It is the Word that elevated prayer before God to the top position. Look through your daily priorities.

It reminds me of the worship leader of the praise school I used to go to. The worship held in the auditorium every morning was truly warm and gracious. Due to the fervent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e worship service went beyond the set time, and there were cases where the first period class was disrupted. The students all liked the worship leader who led the worship service, and they wanted to be close to each other. During lunchtime, they sat around the table where the worship leader was sitting, had a meal together,

and had a conversation that made them laugh. However, the worship leader used to leave in a hurry even after spending time like that. As it turned out, that time was a personal prayer time. In the midst of the busy daily life, the time alone with God was a time that could not be yielded to anything. It was the moment when I learned the secret of worship with anointing.

Second, because the life of prayer is always connected to Jesus, the source of living water. Peter said to the lame man begging in front of the temple, "I have no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v. 6). Peter and John, who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gave the sick man the name of Jesus, the name of salvation and power. Only if I possess it can I give it to others. How can I give away what I lack? A life of persistent prayer gives us the ability to live a life that connects us to Jesus and distributes his power and redemption, much like a water pipe connected to a water source causes water to flow forth when the faucet is opened.



Into the Word

- How was the prayer life of the members of the early church after the Pentecost?
- What did the person who couldn't walk from birth do after being healed?



Into our life

- Check the prayer time in your daily life. What is the prayer life you desire?
- What kind of person is Jesus in me that I want to share with others?



Memory Verse | Acts 3:6

But Peter said, "I have no silver and gold, but what I do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rise up and walk!"



Sharing with your children

Evangelism is to convey Jesus who is in me. Let's talk about what I can do so that Jesus can dwell more fully in me.

A Truly Active Life



How I Praise Thee, Precious Savior
Be Thou My Vision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Opening Discussion

How would you describe an active lif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re was Saul at the center of the persecution towards Christians. No one seems to stop Saul's zeal for the protection of the law. Where did his murderous momentum that seemed to pierce the sky come from? Paul introduces himself this way in Philippians 3: "circumcised on the eighth day, of the people of Israel, of the tribe of Benjamin, a Hebrew of Hebrews; as to the law, a Pharisee; as to zeal, a persecutor of the church; as to righteousness under the law, blameless" (Phil 3:5–6). He claims to be perfect according to the law's righteousness. What incredible assurance, what incredible confidence! However, if you take a closer look at Saul, you can see that he is an energetic person who fervently upholds his own righteousness. Saul himself must have been shocked by what he went through on the way to Damascus. Even though his eyes were open, he was unable to see when he dropped to the ground at the appearance of the light from heaven and had to rely on someone else.

When you encounter Jesus, a person who has lived by his own convictions and self-righteousness will live a life enthralled by the Holy Spirit. It is possible to say that someone who once led a very active life now leads a passive one. No need to interpret a passive life negatively in this situation. It's because a life lived in grace and in accordance with the Holy Spirit's leading is an active life in the genuine sense of the word. It is because of the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with God.

Saul suffered through three days of deep darkness, just like Jonah did when he spent three days in the belly of a big fish. He needed to let go of his sense of superiority. Pre-

viously fully engaged ways of living were falling apart now. What happened next? Saul's eyes lost their scales. The eyes that had been wide open with the law's standard were now fixed only on Jesus. All the predictions and regulations of the Old Testament pointed to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feet that were busy trying to capture and imprison Christians. Now that w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are offering our life to create the Church of God wherever we go, we are no longer devoting all our energy to upholding the law as we formerly did.

I pray that despite the challenges we are currently facing, each of us will live a life successfully walk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Holy Spirit. I hope the scales covering our sight will fall off. In the life I have lived, relying on my convictions and strength, I aspire to live a blessed life under the direction of the Holy Spirit.

Into the Word

- How does the Bible describe Saul's persecution of Christians?
- What happened when Ananias laid hands on Saul?

Into our life

- Have I made things difficult for others because I've been obsessed with my own beliefs like Saul was?
- Have you ever had your values shift, like when the scales came off your eyes?

Memory Verse | Acts 9:5

And he said, "Who are you, Lord?" And he said, "I am Jesus, whom you are persecuting."

Sharing with your children

Talk about what type of person you admire and why.

According to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Great is Thy Faithfulness
I Can Hear My Savior Calling
If the Lord Tells Me So



Opening Discussion

There were instances when I didn't grasp the advice of the elderly because I didn't fully understand life at that moment. Share your experience when you felt like the counsel you received was later understoo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Paul's second missionary journey began. At this time, Paul and Silas revisited the churches he had planted in the southern region of Asia Minor during his first evangelism journey and aimed to strengthen the churches. There could be no greater joy than to leave a church and be reunited with the people there. In addition, how did Paul feel when he observed the believers' growing and maturing faith and the church's consistent day-to-day growth in numbers? I would have been extremely content and pleased. Now, Paul intended to travel to northern Asia Minor and spread the gospel there. He had plans to travel through the nations of Phrygia and Galatia, the side of Mysia, and into Asia Minor from the north. God's will, however, was for Paul to spread the gospel throughout Europe in addition to Asia. Paul desired for the spiritual upheaval in Asia Minor's south to immediately spread to the north, but the Holy Spirit stopped it.

When everything is going well, it is difficult to obey the voice of the Holy Spirit. If I'm doing something wrong, it's acceptable for me to change course, but what if God closes the path and directs me in a different direction when the ministry is flourishing? If even a little bit of my ego is present, grumbling will come out before thanksgiving. What does a Christian's life entail? God is praised at that point because it is a life that carries out God's will rather than my will or my intentions. In Numbers 9, the one thing required of the Israelites to pass through the wilderness was to obey God's guidance. When the cloud rises over

the tabernacle, they march, and all the Israelites camp where the cloud stays. No one knows how long the clouds will stay. It could be two days, a month, or a year. The tabernacle was set up, all the equipment was set in place, and millions of people had set up the camp and were ready to stay. Even then, if a cloud rises, the Israelites have to pack up their belongings and leave. If I was there, I think I would complain without even realizing it. But Christians must cling to a certain fact that is obvious. Everything that God plans is wonderful because God is good. It is true that God desires to give His children the best; He has huge and grand plans that we are unaware of; and He brings these plans to fruition via those who obey. We are all fortunate to walk forth in trust knowing that we are all included in God's plan for today.



Into the Word

- How does the Bible introduce Timothy whom Paul met in Derbe and Lystra?
- What was the reaction of Apostle Paul after seeing the Macedonian vision in Troas?



Into our life

- What were the ways that God helped me to understand his will for my life?
- Do you remember a time when you followed God's instructions despite not understanding them?



Memory Verse | Acts 9:5

And a vision appeared to Paul in the night: a man of Macedonia was standing there, urging him and saying,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Sharing with your children

Let's talk about what to do when my thoughts and parents' opinions are different.

A True Captain in the Storm



If, on a Quiet Sea
I am Thine, O Lord, I Have Heard Thy Voice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Opening Discussion

What do you initially do when a challenging scenario arises unexpectedly?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Finally, it was decided that they would send Paul to Rome. They sailed for Italy from Caesarea aboard the Alexandrian ship after taking the Adramyttium voyage to Mura. Paul advises pausing the cruise for a while since he worries that the storm will get worse while it is going on. Paul made such decisions in a spiritually sensitive manner using the insight that God gave him. Who will pay attention to Paul now that he is tied and being transported to Rome, though? Paul is ignored by the centurion, the captain, and the ship's owner. However, it wasn't long before the Alexandrian ship, sailing along the coast of Crete, met the Northeaster. Eventually they were caught in a storm and began to drift out of control. Everyone aboard the ship was stunned and felt helpless before nature's great power. They throw the cargo they were carrying into the sea and even throw important equipment overboard. Both the captain and the centurion were in a situation where there was only despair as they lost command, and everyone was losing hope to live. Then Paul says, "Yet now I urge you to take heart, for there will be no loss of life among you, but only of the ship. For this very night there stood before me an angel of the God to whom I belong and whom I worship, and he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all those who sail with you'" (vv. 22-24). It is the grace of reversal.

God reveals what kind of person a man of the Holy Spirit is in the storm. Who is the captain of the Alexandrian ship now and who is the commander? In a fierce storm, a man of the Holy Spirit is the leader. An interesting scene appears in the text. During the previous

two weeks, everyone was just drowsy and didn't have the energy to eat. At that time, Paul had the food brought out, gave thanks to God, and ate it. Only then did the people gather courage and start eating. Those who were caught in despair and trembling in fear are only encouraged by Paul's words. Christians are such beings in the world. We confess that God is with us. "Whether the road I take in my life is smooth and always like a calm river, or it is frightening and difficult with great storms, my soul is always at peace." Hallelujah!



Into the Word

- What actions did people caught in fear in the storm take?
- What did Paul say to reassure those who were gripped by fear?



Into our life

- What is the word that God has given me in the difficult circumstances of life?
- When a crisis occurs at home or at church, what role do I act out?



Memory Verse | Acts 27:24

And he said, 'Do not be afraid, Paul; you must stand before Caesar. And behold, God has granted you all those who sail with you.'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part do I play in my friends' lives? Let's talk about the words I use to reassure my friends at difficult times. Let's discuss if any of my friends are courageous role models.

광야 같은 인생길:

장막에
하룻밤 머물렀다가는
나그네 같은 삶



이진희 목사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가나안에 거하다”의 저자)

1 유목민(노마드)은 언제라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아침에 밥 먹으면서 “여보 오늘 이사갑시다” 하면 아침 먹고 짐을 주섬주섬 싸고 점심때쯤 되면 떠난다. 그들에게는 짐이 별로 없다. 수시로 이삿짐을 싸고 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짐이 많으면 그야말로 짐만 된다. 그들은 나귀 등에 실을 수 있을 만큼의 살림살이 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나귀가 U-Haul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는 가져 나올 수 있는 것은 다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버리고 가기 아깝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을 것이다. 무엇부터 버렸을까?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짐을 최대한 줄일 것이다.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짐까지 많아 보라. 광야에서 쓰러져 죽고 말 것이다. 광야를 지날 때는 탐욕을 버려야 한다. 탐욕을 모래 구덩이 속에 파묻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광야 구덩이 속에 묻히게 되고 말 것이다.

대상들이 수십 마리의 낙타에 짐을 잔뜩 싣고 광야를 지나고 있다. 낙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도 1주일 열흘 씩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광야를 지날 수 있다. 강인한 것으로 말하자면 낙타를 따라올만한 짐승도 없을 것이다. 낙타는 평생을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모래만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리고 평생 등에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그런지 낙타는 웬지 슬픈 눈빛을 하고 있다. 먼 곳을 바라보는 낙타의 눈에는 바다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런 낙타도 갑자기 퍽 하고 쓰러지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 왜 쓰러지는 것일까? 등에 짐이 너무 무거워서다. 주인이 욕심을 부려서 낙타가 질 수 있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지워주면 낙타는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고

유목민들이

장막을 벗길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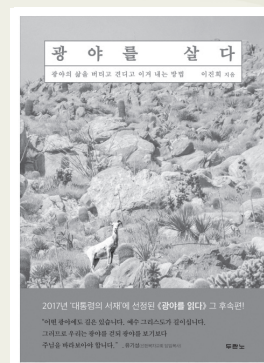
결코 슬퍼하거나

애석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다. 그러면 그 낙타가 등에 실었던 짐 다 버리고 가야 한다. 다른 낙타의 등에 실으면 그 낙타도 쓰러져 죽고 말 테니 말이다.

2 나그네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한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하룻밤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 아닌가? 그런데 왜 떠나지 못하는가? 떠나는 것이 어려운가?

소유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유목민은 소유에 관심이 없다. 땅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집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땅과 집이 있으면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것은 소유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버리고 갈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떠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떠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집착과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집과 땅에 매여 살기 때문이다. 가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버리기에 가까운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노마드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는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소유한 것이 너무 많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것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매여 사는 것이다. 나그네는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3 나그네는 지나가다 문 두드리고 들어가 하룻밤 머물렀다 아침이 되면 떠난다. 그 집이 좋다고 편하다고 며칠씩 묵는 나그네는 없다. 내 집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야에서 베두인들은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으면 무조건 환영한다. 이름도 성도 묻지 않고 환대를 한다. 그러나 사흘 이상 머물면 안 된다. 하루나 아니면 이를 머물렀다 가야 한다. 결코 나그네는 한곳에 사흘 이상 머물지 않는다.

나그네는 아무리 좋은 집에 머물렀다 가도 그 집이 그에게는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이슬 피해 하룻밤 머물고 떠나는 집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장막과 같은 집에 평생 머물려고 한다. 나는 언제나 이 장막에서 벗어나 집을 짓고 사나? 아니다. 고대광실에 살아도 그 집은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살다가 광야로 나오게 되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막에서 살아야 했다. 그 후 가나안에 들어가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며 우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집을 집이라 부르지 않고 광야에서처럼 여전히 장막이라고 불렀다.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ohel, 장막)으로 돌아가라”(삿 19:9)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려”(삿 20:8)

“이스라엘 사람 삼천 명을 택하여 ... 일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삼상 13:2)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 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왕상 8:66)

바울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나 장막에 살고 있다고 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후 5:1)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살아가는 사실은 장막에 사는 것이라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였으면서도 장막에 살았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다.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히 11:9-10)

베드로는 흥미롭게도 우리의 몸을 장막에 비유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벧후 1:13-14)

이사 갈 때 장막을 벗긴다. 베드로는 죽음을 이사 가는 것에 비유를 한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히 11:16)

4 이사 갈 때 다 장막을 걷어야 하는 것처럼, 그 장막을 걷어야 할 때가 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가도 우리는 장막에 사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그 장막이 벗겨져도 우리는 애석해하지 않는다. 더 좋은 집, 하늘 본향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이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목민들이 장막을 벗길 때 결코 슬퍼하거나 애석해하지 않는다. 마지못해 벗기지 않는다. 그들은 그곳을 그들이 정주할 집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장막을 벗기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또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모두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조만간에 벗겨지게 될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임시로 머무는 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 장막에 하룻밤 머물렀다 떠나는 나그네다. 장막에 하룻밤 머물렀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 왜 그렇게도 가나안에 들어가 좋은 집을 짓고 은금이 증식되고 우양이 번성하며 배가 부르고 소유가 넉넉하게 되는 것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신 8:12-13). 왜 나그네들이 주인처럼 살려고 하는 것일까?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한국교회사 66가지 명장면들!

08. 벼슬 대신 복음을 산 은율 부자

황해도 은율에 한 부자가 살고 있었다. 이 부자는 생활은 넉넉했지만 벼슬아치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불편한 마음이 있었다. ‘돈도 좋지만 벼슬 한자리는 해야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벼슬아치가 되어야 해’ 1896년 초가을, 그 부자는 돈으로 벼슬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돈궤를 들고 서울로 왔다. 그런데 그 부자가 서울에 올라오자마자 본 것은 거대하고 성대한 ‘국왕탄신 축하예배’였다.

“여보시오, 예배가 무엇이며, 저 서양 코쟁이들은 누구니까?”

“어디서 왔기에 그것도 모르시오. 저 사람들은 예수교를 전하는 선교사들이라오.”

“예수교? 선교사?”

그들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기독교의 복음에 큰 감명을 받았다. 이때부터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부자는 기독교 서적을 구해서 열심히 읽었다. 그리고 알게 된 기독교인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다. 그가 내린 결론은 기독교가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었다.

‘그래 나도 예수교를 믿어 봐야지.’

부자의 결심은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는 열심히 신자가 되었다. 부자는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벼슬을 사려고 가져간 돈으로 벼슬 대신 기독교 서적을 몽땅 사서 당나귀에 싣고 고향 황해도로 돌아왔다. 그는 쉴 틈도 없이 자신이 들은 신기한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들에게 책을 팔았다.

얼마 가지 않아서 책들은 널리 유포되었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났다. 그 숫자는 계속 불어나서 상당한 숫자가 되었다.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 이 부자는 서울의 언더우드에게 편지를 보냈다.

“언더우드 선생님! 가능하신 대로 빨리 은율로 오셔서 세례를 받고 싶어 하는

편집자주 | “잊을 수 없는 신앙선배들의 이야기”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사를 빛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 부자의 편지가 도착하기 바로 전날 우연의 일치로 언더우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관리로부터 황해도 은율 지방의 행정관으로 임명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시간이 되는 대로 방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언더우드는 관리의 요청을 수락하면서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다.

“관사의 큰 방에 사람들을 모아 놓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 외에는 그곳에 갈만큼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그 관리의 언더우드가 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했다. 바로 이 시점에 은율 부자로부터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편지가 온 것이다.

언더우드는 1900년 9월 드디어 은율을 방문하게 되었다. 지방 관리의 약속대로 그곳에서 가장 넓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였다. 언더우드는 열정적인 설교를 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진리와 소망과 기쁨이 있습니다. 양반, 평민, 부자와 노비 그리고 벼슬아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언더우드의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 부자가 일어났다.

“우리가 들은 것은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자에게 부인이 둘이 있는 것이었다. 그것은 세례의 결격사유가 되었다. 언더우드의 태도는 단호했다.

“침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당신에게는 한 명의 부인만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부자는 세례를 받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둘째 부인에게 충분히 살 수 있는 땅과 집을 마련해 주고 헤어지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로 걱정했다면 제대로 믿어야지.’

그리고 나서 그 부자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 언더우드는 이미 그곳에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는 놀랐다.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 사람들은 첩과 악습, 우상을 버릴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놀라운 헌신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한편, 홀튼(언더우드 부인)은 이곳의 여인들을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은 자신은 너무 무지하고 부도덕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걱정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홀튼과 함께 동행했던 한국인 사역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이 배가 고플 때 당신 앞에 밥 한 그릇이 놓여있으면 그것을 즉시 먹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이 구원을 원한다면 당신은 단지 그것을 받아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홀튼은 한국인의 간단하고 분명한 신학에 대해서 놀랐다. 굶주린 자에게 지식이나 윤리가 필요 없는 것처럼, 갈급한 영혼은 그의 지식과 도덕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유성준교수가 새로 쓴 세이비어교회 이야기 14

세이비어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메뉴얼 6

6. 희년 주거사역(Jubilee Housing)

“희년 주거사역”은 집 없는 저소득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고통과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 모든 이들이 함께 성장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희년 주거사역”은 주거를 통해 공정한 삶을 만들어 낸다.

공정한 주거는 도심지 개발로 성장하는 지역에 또는 그 근처에 수입에 맞게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는 것이다.

“희년 주거사역”은 다양하고 자비로운 공동체를 구성하여 모든 이들이 잘 성장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다. 우리는 기본적인 자원과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고 사람들이 기회를 지원해주는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함께 사는 도시와 세상을 꿈꾼다. 그들이 기여하고자 하는 바는 이 큰 비전의 한 부분을 미국의 수도인 D.C. 안의 한 지역 사회에서 만들고 유지하며, 이 현실적 기반으로부터 더 넓은 사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희년 주거사역”은 1973년 세이비어교회 성도들이 워싱턴 D.C. 중심부에 기준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사람들의 주거 문제를 다룰 필요를 알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Adams Morgan에 있는 The Ritz and Mozart 아파트 건물을 함께 구입하였다. 그 이후로 Ward 1에 있는 10개의 건물을 구입하여, 연간 800명의 사람들에게 주거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했다. 현재 저소득층 가족들은 그 지역에 집세를 감당할 수 있는 주거가 없어서 밀려나고 있는데, 그들은 그러한 자들이 도시 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들의 사역은 정의로운 주거를 만든다.

그들은 신앙과 소명에 뿌리를 두고, 지원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기회들이 내재된 재능을 드러나게 하고 동기부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각 사람의 자기 결단을 믿고 서로 동역자로서 일하며 재능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공동체로 삶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장애물을 극복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이 도시의 모든 이들이 성장하도록 돕는다고 믿는다.

■ 그들이 하는 일

그들은 가난과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기회를 얻는 것에 제한적인 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 세계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한, “희년 주거사역”의 최우선 과제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대한 정의를 찾는 일일 것이다. 워싱턴 D.C.의 고급화되는 지역에 서비스가 풍부한 적당한 가격의 주택을 조성함으로써, 그들은 개인과 가족들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돕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그들의 도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인종과 경제적 분열을 초월한 관계 형성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와 지지자들을 초청하여 거주자 공동체와의 상호 관계를 맺도록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사람 중심, 장소 기반 및 파트너십 중심의 전략과 솔루션을 결합하여 영향을 미친다.

■ 사람 중심

그들은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독특한 재능과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들은 그것을 표면화하고 그러한 자들이 잠재력을 활용하도록 도움 기회를 만든다. 주민들과 협력하여 청년과 가족, 귀향 시민, 그리고 기회 접근이 제한적인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개인적인 성장의 통로로 지속적인 교육, 재무 코칭, 진로 준비, 저축 및 신용 쌓기 기회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주민협의회 및 이사회에서 리더십 기회를 통해 이웃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대된다.

■ 장소 기반

그들은 함께 사는 공동체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나누는 장소라고 믿는다. 따라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기회와 자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걷기 좋은 지리적 영역에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갖춘 서비스형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수년간 그들은 애덤스 물간, 컬럼비아 하이츠, 마운트 플레전트 지역에 있는 8개의 다세대 아파트와 2개의 집을 포함하여 10개의 건물을 포함하게 되었다. 그들 주택의 대다수는 지역 중위소득의



30%이하를 버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다.

■파트너십 중심

그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삶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수년간 그들은 어려움을 영속화시키는 시스템에 도전하고 자료와 전문지식을 공유하여 전략적 협업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이 파트너 중심 모델의 현재 두 가지 징후는 “the New born to College and Career Pipeline”으로 요람에서 직장까지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의 연속체를 만들고 있고, “the Platform of Hope”는 어려운 재무 계획, 저축 증가, 혁신적인 새로운 신용 구축 기회를 위한 재정 능력을 키우는 재정 계획 조직이다.

■공정한 주거란 무엇인가?

정의로운 주거는 발전하는 지역에 위치한 저소득층들이 자기 수입에 맞게 주택비를 지급하고 사는 매우 저렴한 주택이며, 인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장기 거주자들이 그들의 지역사회에 머무르거나 저소득 거주자들이 새로 발전하는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그 지구의 증가하는 변영으로부터 고립되었다.

이에 따라, “희년 주거사역”은 발전하는 지역에서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품질의 매우 저렴한 주택을 통해 사람들을 도시의 변영과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이 공정한 거주이다.

■매우 저렴한 주거

“희년 주거사역”은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저렴한 주택’이 아닌 ‘매우 저렴한 주택’을 제공한다. 그들 아파트의 3분의 2는 지역 중위 소득의 30% 이하 또는 4인 가족 기준 34,000달러 이하의 주민에게만 제공된다. 거의 모

든 가구의 소득은 지역 중위 소득 60% 이하이다.

이는 미국주택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 의해 정의된 바와 같이 지역 중위 소득 80%까지 확장되는 ‘저렴한 주택’과는 대조적이다. 여기에는 최대 65,000달러를 버는 개인이 포함된다. 모든 단계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지역 중위 소득 30% 이하 거주자의 60% 이상은 소득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사용한다.

이들은 워싱턴 D.C.에서 생활하는 데 상당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 사회로, 노숙자 퇴출 가구, 최저 임금을 받는 근로자,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한 많은 가구 등이 포함된다.

■ 해당 지역 및 인근 서비스

매우 저렴한 주택에 대한 자격을 갖춘 개인과 가구는 종종 주택 외에도 도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장벽에 직면한다. 여기에는 재정적 수단에 대한 지식 부족, 학생의 성적 미달, 해결되지 않은 의료 문제, 성인들이 일하는 동안 양질의 보육의 필요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희년 주거사역”은 파트너 비영리 단체와 협력하여 건물 내부 및 주변 주민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희년 주거사역”은 가능한 한 자주 부동산 자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녀를 살고 있는 곳에 있는 조기 학습 센터나 방과 후 프로그램에 데려다줄 수 있도록 한다. “희년 주거사역”은 보행 가능한 지역 내의 거주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조율하여, 거주자들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거주자가 매우 저렴한 임대료와 주변 지원책을 활용하여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번창하는 이웃

장소는 대단히 중요하다. Raj Chetty와 다른 사람들의 최근 연구는 우편번호가 미래의 성공에 대한 가장 높은 단일 예측 변수라는 것을 보여준다. 자원이 풍부한 지역



에 사는 저소득 가정은 다른 저소득층 가정보다 미래 소득이 더 높고 정부 지원에 덜 의존하게 된다.

“희년 주거사역”은 워싱턴 D.C. 전역에 걸쳐 전면적인 변화를 강요하는 시장의 힘에 직면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성장하고 새로운 거주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도시에는 사람들을 위한 두 가지 길이 있는 듯하다. 많은 것들이 새로운 차원의 풍요와 번영을 이끄는 투자와 개발의 물결과 연결되어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것들이 성장과 단절된 채 주변부로 점점 밀려나고 있다.

그들의 사역은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그들 도시의 모든 이웃에 정의로운 주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모든 주민이 소득, 인종, 전과의 과거 전력, 또는 배경과 상관없이 번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는 하나의 통일된 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 

편집자주 『유성준 교수가 새로 쓴 세이버교회 이야기』를 새로 연재합니다. 이 책은 세이버교회와 서번트 목회에 관한 연구들을 담고 있으며 세이버교회의 실질적 사역 매뉴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난관을 타개할 비전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금번 시리즈를 게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유성준(한국 서번트리더십훈련원장) 목사님과 신앙과지성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날이 오면...

정미형_드림교회LA



2020년 2월 중순께 중국에서 발병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될 줄 그 때는 상상하지 못했다. 처음 발병했을 때의 긴장감과 두려움이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고 작년 한 해 떠들썩하게 뉴스를, 인터넷을, 신문을 도배하던 코로나라는 생소한 단어도 어느덧 삶의 일부처럼 자연스러워지게 되었다. 막연히 두렵기만 하던 존재에서 올해부터 백신을 접종하게 되자 서서히 코로나라는 존재는 그 명성을 잃어가고 있다.

주일 아침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우리였다. 각각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으로 분주하고 바빠 보였던 교회의 문이 닫히면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든 사람들이 교회까지 않게 되었다. 혼자 집에서 TV를 통해 드리는 예배의 수단으로만 생각되었던 온라인 예배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 년째 드리고 있다. 하지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늘 돌던 궤도를 벗어난 횡성처럼 혼란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던 팬데믹 초기와 다르게 어느덧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진 궤도를 정상의 궤도로 수정하며 돌고 있는 듯하다.

주님께서는 코로나라는 질병을 통해 우리에게 그날이 불현듯 찾아옴을 다시 일깨워 주셨다. 코로나로 누구도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속에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나이가 들면서, 주위에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나이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더 자주 듣게 된다. 아니 더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올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의 부고 소식은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그렇게 막연하게만 생각되었던 그날이 21년 동안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찾아온 것이다.

코로나로 병원에 입원해서도 다른 직원들과 텍스트 메시지로 농담을 주고받던 그를 일주일 뒤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사람이 되리라고 나는 상상하지 못했다. 아직까지도 나와 직원들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함께 일하던 다른 동료는 2년 후쯤으로 생각했던 정년 퇴직을 결정하고 사직서를 인사과에 제출하였고, 그동안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던 직원들도 가족과의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일찍 퇴근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많은 파장으로 크게 작게 소리를 내고 회사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날이 그에게 이렇게 빨리 올 줄 알았다면 조금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도 들었고 무엇보다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함께 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 번도 그에게 전하지 못했음에 후회가 밀려왔다.

이런 세상의 사건 사고와 나의 후회와 상

관없이 사계절은 여전히 자기의 길을 가고 어느덧 2021년 봄의 옷을 입고 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은 그리고 자연은 겨울옷을 벗고 봄옷으로 갈아입었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칙칙한 겨울옷을 입고 있다.

갑작스러운 회사동료의 죽음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순절인 지금 나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기보다는 내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읽고 나를 비추어 보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자라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과는 다르게 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분리되어 살고 있는 내 삶의 민낯과 자주 대면하게 된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는 신앙이 뭔지구

약이 뭔지는 몰랐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수시로 눈물이 흘렀고 그저 주님이 좋고 감사하고 기뻛는데 지금 나는 매주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도 그때 느꼈던 감격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 이따금씩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주님도 나처럼 그때의 시간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계신 건 아닐까 싶다. 목사님도 신앙의 선배들도 늘 초신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주님을 더 알아 가야 하며 성숙해져야 한다고 믿음의 첫발을 내딛던 나에게 들려주었던 한결같은 조언들이었다.

난 요즘 더 많이 나를 처음 만나주셨을 때




느꼈던 감격과 따뜻했던 주님의 숨결을 그리워하고 있다. 그리고 단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이 혼돈의 시대를 헤쳐 나가기를 버거워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믿음이 느슨해진 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께서서는 내가 믿음 생활의 허리끈을 질끈 동여 매기를 바라시고, 이제는 주님의 숨결을 말씀을 통해 느끼는 연습을 하라고 2019년 9월부터 큐티나눔방의 일원으로 불러주셨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혼돈의 시대를 이길 유일한 힘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매주 토요 일마다 새벽 예배 후 참석하게 된 큐티나눔방이 2020년에 불어닥친 팬데믹을 견딜 수 있는 주님이 준비하신 요새요 방패였음을 깨닫게 된다. 세상과 내 마음으로부터 들리는 수많은 두려운 소리의 창문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증으로 닫고 주님 앞에 앉아 그 날그날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단체 큐티 카톡방에 올리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를 받았다.

어떤 날은 머릿속이 세상의 걱정으로 꽉 차 분명 성경을 눈으로 보며 여러 번 반복하여 읽는 데도 마치 내 마음, 내 생각이 세상에 대한 염려로 코팅된 것처럼 말씀이 흡수되지 않는 날도 있고, 어떤 날은 말씀이 눈과 박히듯 또렷하게 하루 종일 생각나는 날도 있다. 매일 포기하지 않고 큐티나눔방에

머물러 단톡방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의 묵상을 읽으며 큐티 방 팀원들도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만 나타나고 보이는 다리를 걷기 위해 용기를 내고 있음을 보게 되었고 그런 글들이 내가 처한 환경을 이길 용기와 힘을 주었다.

2020년 팬데믹이 시작되고 교회에 갈 수 없었던 시간을 큐티나눔방을 통해 나는 새벽마다 주님의 온기를 말씀 속에서 찾으려 씨름을 계속하였고 오늘도 “기쁨의 언덕” 책을 펼쳐놓고 한 번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또 읽으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새벽마다 주님의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며 주님을 더듬어 찾으려고 애쓸 것이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나는 광야의 한복판 어딘가를 걸어왔고 걷고 있고 또 걷게 될 것이며, 그리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그 광야 어느 지점에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날을 홀연히 맞이하게 되리라.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체취를 느끼며 또 그 주님의 체취가 내 삶 구석구석에 배어 있는 주님이 남겨두신 그루터기가 또 증인이 되어 선한 열매를 많이 맺기를 소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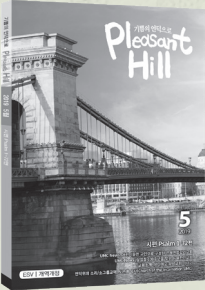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권 을 후원하면	매월 \$35 per month
20권	매월 \$70 per month
30권	매월 \$105 per month
50권	매월 \$175 per month
100권	매월 \$350 per month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운동

Email : tph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한인교회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인교회 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10 ☐\$20 ☐\$30 ☐\$50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한인교회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tph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Pleasant Hill

기쁨의 언덕으로

“미 전역의
한인이민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갑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ㄱ 가득한교회 (이강, NJ 908-464-1807)
갈릴리연합감리교회 (조재언, IL 617-678-5815)
감람연합감리교회 (이영성, HI 808-956-1004)
겨자씨한알교회 (이기용, NV 702-595-3678)
그레이스벤엘교회 (장학범, NJ 201-242-8866)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 (이종무, NC 336-852-8535)
- ㄴ 남부시카고교회 (김호근, IL 219-765-1379)
남부플로리다한인감리교회 (이철구, FL 954-739-8581)
뉴난한인교회 (남성원, GA 678-978-2099)
뉴욕그레이트 교회 (양민석, NY 917-326-1723)
뉴욕한인교회 (최현덕, NY 212-662-1422)
뉴저지연합교회 (고한승, NJ 201-816-1284~5)
- ㄷ 달라스중앙감리교회 (배연택, TX 972-258-0991)
드림교회 (최요셉, CA 626-793-0880)
디트로이트중앙감리교회 (김대기, MI 248-545-5554)
- ㄹ 로스펠리즈교회 (신병욱, CA 323-382-0691)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 (김동기, NY 585-872-0188)
로턴새빛연합감리교회 (정기영, OK 580-536-6884)
리빙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용일, NJ 201-403-4787)
- ㅁ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록, WI 973-525-9584)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 (김진우, NY 212-758-1040)
몽고메리제일감리교회 (김성은, AL 334-279-3871)
몽고메리주님의교회 (유혁재, AL 334-279-1935)
무지개연합감리교회 (이길표, ME 207-774-1617)
- ㅂ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박대성, MD 410-979-0691)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최진용, MA 978-470-0621)
- ㅅ 사바나한인감리교회 (박진원, GA 912-355-8225)
산타마리아벤엘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 CA 805-922-1004)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한상훈, IL 773-319-8005)
상향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 CA 415-759-1005)
샌디에고희망교회 (조기현, CA 858-354-0009)
샌안토니오감리교회 (배혁, TX 210-341-8706)
성가연합감리교회 (김정호, VA 757-877-4201)
시카고예수사랑교회 (조선형, IL 847-372-6057)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아운동은

모든 한인 이민교회와 함께 합니다!

교회정보에

변경·수정 사항이 있으면

tphdevotion@gmail.com로

알려주십시오.

- ①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 IL 847-541-9538)
- ② 아리조나한인연합감리교회 (김찬홍, AZ 480-423-7777)
아스토리아한인교회 (진성인, NY 718-626-1278)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현, HI 808-488-3018)
아틀란타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서성수, GA 770-321-0020)
아틀란타한인교회 (권혁원, GA 678-381-100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 (정희권, WI 920-687-9191)
언약교회 (CA 909-622-8815)
얼바인드림교회 (박성환, CA 949-786-8354)
엠마오연합감리교회 (최윤석, VA 804-272-5831)
오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 CA 510-451-9076)
온타리오교회 (전재홍, CA 909-986-6641)
올랜드팍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 (이동근, IL 708-403-2007)
와싱턴제일연합감리교회 (정성호, VA 571-401-3872)
위치타은혜감리교회 (임일호, KS 316-239-6883)
은혜의강연합감리교회 (김태호, CA 714-870-9991)
인디애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 (이기채, IN 317-894-4456)
인천향동교회 (이영재, 한국)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달라스 (권성철, TX 214-238-2003)
- ③ 찰스톤한인감리교회 (SC 843-797-8199)
체리힐제일교회 (김일영, NJ 856-424-9686)
- ④ 캔사스한인중앙감리교회 (송명철, KS 913-648-4277)
케노사한인연합감리교회 (이대규, WI 262-658-1131)
콘트라코스타연합감리교회 (김영래, CA 925-935-0191)
- ⑤ 탬파한인감리교회 (한명훈, FL 813-907-5815)
토랜스교회 (강현중, CA 213-235-7659)
트리니티한인교회 (김경곤, GA 678-431-7924)
- ⑥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오광석, OR 580-536-6884)
프렛빌한인교회 (홍성국, AL 334-221-9392)
- ⑦ 하늘비전교회 (장재웅, MD 410-200-3859)
하와이베다니연합감리교회 (원홍연, HI 808-626-7434)
한미교회 (이지성, CO 719-570-0300)
후러싱제일교회 (김정호, NY 718-939-8599)

성경진도표

2023/01			2023/02			2023/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주일	01	사사기	1	01	사무엘상	1
02	에베소서	1	02		2	02		2
03		2	03		3	03		3
04		3	04		4	04		4-5
05		4	05		주일	05		주일
06		5	06		5	06		6-7
07		6	07		6	07		8
08		주일	08		7	08		9
09	갈라디아서	1	09		8	09		10
10		2	10		9	10		11
11		3	11		10	11		12
12		4	12		주일	12		주일
13		5	13		11	13		13
14		6	14		12	14		14
15		주일	15		13	15		15
16	빌립보서	1	16		14	16		16
17		2	17		15	17		17
18		3	18		16	18		18
19		4	19		주일	19		주일
20	골로새서	1	20		17-18	20		19
21		2	21		19	21		20
22		주일	22		20	22		21-22
23		3	23		21	23		23
24		4	24	룻기	1	24		24
25	데살로니가전서	1	25		2	25		25
26		2	26		주일	26		주일
27		3	27		3	27		26
28		4-5	28		4	28		27:1-28:2
29		주일				29		28:3-29
30	데살로니가후서	1-2				30		30
31		3				31		31

2023/04			2023/05			2023/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사무엘하	1	01	다니엘	1	01	욥기	1
02		고난주간	02		2	02		2-3
03		H-1	03		3	03		4-5
04		H-2	04		4	04		주일
05		H-3	05		5	05		6-7
06		H-4	06		6	06		8
07		H-5	07		주일	07		9-10
08		H-6	08		7	08		11
09	부활절	주일	09		8	09		12-14
10		2	10		9	10		15-17
11		3-4	11		10	11		주일
12		5	12		11	12		18-19
13		6	13		12	13		20-21
14		7	14		주일	14		22
15		8-9	15	호세아	1	15		23-24
16		주일	16		2:1-13	16		25-26
17		10	17		2:14-23	17		27
18		11	18		3	18		주일
19		12	19		4	19		28
20		13	20		5	20		29-30
21		14	21		주일	21		31
22		15-16	22		6	22		32
23		주일	23		7	23		33-34
24		17	24		8	24		35-36
25		18	25		9	25		주일
26		19	26		10	26		37
27		20-21	27		11	27		38-39
28		22	28		주일	28		40
29		23-24	29		12	29		41
30		주일	30		13	30		42
			31		14			

2023/07			2023/08			2023/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역대상	1-2	01	사도행전	1	01	역대하	5
02		주일	02		2	02		6
03		3-4	03		3	03		주일
04		5-6	04		4	04		7
05		7-9	05		5	05		8-9
06		10	06		주일	06		10
07		11	07		6	07		11-12
08		12	08		7	08		13
09		주일	09		8	09		14
10		13	10		9	10		주일
11		14	11		10	11		15-16
12		15	12		11	12		17
13		16	13		주일	13		18-19
14		17	14		12	14		20
15		18	15		13	15		21
16		주일	16		14	16		22-23
17		19	17		15	17		주일
18		20	18		16	18		24
19		21	19		17	19		25
20		22	20		주일	20		26
21		23	21		18	21		27
22		24-25	22		19	22		28
23		주일	23		20	23		29
24		26-27	24		21	24		주일
25		28	25		22	25		30
26		29	26		23	26		31
27	역대하	1	27		주일	27		32
28		2	28		24	28		33
29		3	29		25-26	29		34
30		주일	30		27	30		35-36
31		4	31		28			

2023/10			2023/11			2023/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예레미야	주일	01	예레미야	29	01	요한복음	1
02		1	02		30	02		2
03		2	03		31	03		주일
04		3	04		32	04		3
05		4	05		주일	05		4
06		5	06		33	06		5
07		6	07		34	07		6
08		주일	08		35	08		7
09		7	09		36	09		8
10		8-9	10		37	10		주일
11		10	11		38	11		9
12		11	12		주일	12		10
13		12	13		39	13		11
14		13	14		40-41	14		12
15		주일	15		42	15		13
16		14	16		43	16		14
17		15	17		44-45	17		주일
18		16	18		46-47	18		C-1
19		17	19		주일	19		C-2
20		18	20		48	20		C-3
21		19-20	21		49	21		C-4
22		주일	22		50	22		C-5
23		21	23		51	23		C-6
24		22	24		52	24		주일
25		23	25	예레미야애가	1	25		15
26		24	26		주일	26		16
27		25	27		2	27		17
28		26	28		3	28		18
29		주일	29		4	29		19
30		27	30		5	30		20
31		28				31		21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Memo

기쁨의 언덕으로
Pleasant
Hill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이메일	tphdevotion@gmail.com
❖ 발행인	이성현(느헤미야 운영위원장)
❖ 편집인	류계환(선교총무)
❖ 편집기획	박효연
❖ 영어번역	김영실, 박길재, 양훈, 엄윤호, 홍사라, Ester Kim
❖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중, 김진우, 박효연, 방승호, 배연택, 배혁, 서준석, 유혁재, 조기현, 차세진
❖ 평신도 편집위원	조속희, 하금숙, 장호경
❖ 편집문의	tphdevotion@gmail.com
❖ 배송/결제문의	chris@hosanna.net 562-774-8872(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조기현 목사 (샌디에고 희망의교회, CA)

❖ 주일 칼럼
김시은 목사 (미주성결교회 웅기장이교회, CA)
김영희 사모 (미주복음방송, CA)
김재권 장로 (새생명비전교회, CA)
송정명 목사 (미주 성시화운동 공동대표, 전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CA)

-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 1976, 1992 American Bible Society. 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판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